



제5회 이민신학심포지엄을 앞두고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가진 관계자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 제 5회 이민신학심포지엄, 적용과 실천방법 다룬다

한어/ 다민족권으로 나눠 진행

강사에 박희민, 한기홍, 김경진 목사 등

“신앙의 포괄적 적용과 실천방법” 주제로 제 5회 이민신학 심포지엄이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엘바인온누리교회(권혁빈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민신학은 이민자, 이민사회 그리고 이민교회에서 발생한 사회, 문화적 신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이민신학연구소(오상철 박사)는 “이민자들이 겪게되는

사회 문화적, 언어적, 인종적 그리고 신앙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해석의 틀을 제시하며, 아울러 이민교회와 사회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학문이 이민신학”이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선 이민교회 목회자, 학자, 사회기관 관계자, 평신도들이 참여해 토론의 시간으로 꾸며지게 된다.

5일 오전에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희민 목사(새생명선교회 대표)는 “이번에는 실제 커뮤니티와 크리스천이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임이 될 것”이라며 “1세대들이 이룬 신학을 2세대에게 전수하고, 다문화 속에서 창의적 사역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부 한인 이민교회 지도자들, 2부 다민족 지도자들을 트랙 강사로 세워 진행되는 심포지엄에서는 박희민 목사,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김경진 목사(나성영락교회), 스티브황보(

라팔마시 시장), 오상철 박사가 1부 강사로 서게 되며, 2부에서는 아놀드 폴른(Arnold Fallon, 바이올라대 Ph.D. 과정), 존 맨부(John Mambu, Indonesian Presbyterian Church, Senior Pastor), 윌리엄 앤(William Eng, Chinese Baptist Church of Orange County, Senior Pastor), 강우중 교수(이민신학연구소 수석연구원, 미주 장신대학교), 제프 현 목사(Jeff Hyun, 남가주 사랑의 교회, Holy Wave, Leading Pastor)가 강사로 나선다. 설교는 박효우 목사(풍성한교회)가 맡는다. 토마스 맹 기자

## 퀸즈장로교회

### 박규성 목사 사임건

### 노회서 원만히 처리돼



박규성 목사

최근 세리토스 장로교회에 청빙된 퀸즈장로교회 2대 담임 박규성 목사의 사임 건이 예상대로 노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됐다. 퀸즈장로교회가 소속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는 10일 오전 10시 퀸즈장로교회에서 제73회 정기노회를 열고 지난 9월6일 박규성 목사가 제출한 위임목사 시무 사면 허락 청원, 9월9일자로 박규성 목사로부터 제출된 남가주노회 이명 청원, 9월9일 퀸즈장로교회로 당회로부터 제출된 임시 당회장 파송 청원 등 여러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한편 박규성 목사는 퀸즈장로교회 측에 사임 의사를 전달하고 세리토스 장로교회 청빙에 응해 8월31일 토요일 새벽집회와 9월1일 1,2,3부 주일에 배를 인도했으며 세리토스장로교회는 지난 8일 공동의회를 열고 박규성 목사를 3대 담임목사로 확정지었다.

갑작스러운 담임목사 공백을 맞은 퀸즈장로교회는 당회를 소집해 퀸즈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김바 있는 대전 해천대학교교 김성국 목사를 후임으로 내정, 8일 주일예배를 통해 성도들에게 공표했다.

또 이날 퀸즈장로교회 원로 장영춘 목사는 박규성 목사의 사임 수락과 후임 김성국 목사의 청빙 결정 사실을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축복 가운데 박규성 목사를 보내주자고 권면하는 등 교회가 빠르게 안정을 찾는 모습이다.

개교회 담임의 청빙 및 사임과 관련한 사안들이 신속하게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자칫 노회에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지만 개교회들이 신속하게 사임을 받아들이고 후임 내정을 완료함에 따라 노회에서도 박규성 목사의 사임 건이 원만히 처리됐다는 분석이다.

김대원 기자

## 한미기독교교회관 건립 위한 일일식당 10월에 재추진

재정투명 위한 트러스트 계좌

개설, 시정부와 부지 도네이션

협의 진행 업무 차질로

4월 일일식당은 취소돼

그동안 주춤했던 한미기독교교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마련이 다시 추진되고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이운영 목사)는 3일 오후에 한미장로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일식당을 오는 10월 14일(월)부터 15일(화)에 오전 11

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크릿가든 천지홀&마당홀에서 오픈한다고 밝혔다.

목사회는 올해 4월에 열려고 했던 일일식당이 취소된 것에 대해선, 업무에 차질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열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목사회 임원들은 △주정부로부터 기독교교회관 비영리단체 허가 승인 △재정투명을 위해 트러스트 계좌(trust account) 개설 △LA 시정부와 부지 도네이션 관련 협의 진행 중에 있음을 밝혔다.

>> 2면으로 이어짐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나라정비** ASE 유렵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나라오토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 남가주 목회자 초청

# 영상설교 및 교회 영상물 제작 세미나

세상은 IT 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보고 느끼는 감성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목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교회가 효율적인 복음전도 수단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에 영상 설교 LA지부에서는 감성문화에 익숙한 세대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한 교회 홍보, 교육, 설교에 도움을 드리는 세미나를 열고 목회자들을 초청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목회자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자리관계로 선착순 등록을 받습니다. (개인 노트북 지참 필수)

- 일 시: 2013년 9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오후4시
- 장 소: 시크릿 가든 식당 홀(Olympic+Westlake in LA)
- 회 비: \$10(점심 제공)
- 경 품: 노트북 1개 및 기타(추첨)
- 주 최: 영상 설교 LA 지부
- 후 원: 남가주교협, 남가주 중부교협, 기독일보, 레이저비전, 한국장 의사, 노트북샷닷컴, 실버아카데미, 코리안 가정 양로원, 현대 설교 연구소
- 등록문의: 회장 광부환목사(213-321-4433) 총무 양경선목사(213-255-1725)







월드미션대학교 ATS 정회원 인준 감사예배에 참석한 동교 관계자 및 교계 인사들이 기념 촬영에 응하고 있다.

## 월드미션대, ATS 정회원 인준 감사예배 드려

### 남가주 교계 인사들 축하 메시지 전해

월드미션대학교(WMU)가 ATS 정회원 인준을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지난 7일(토) 오후 6시에 동교 채플실에서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에서는 재학생 및 졸업생과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준

을 축하했다. 예배 식순은 사회 임성진 부총장, 기도 윤성환 이사장, 설교 송정명 총장, 축도 임동선 설립자로 진행됐으며, 축하시간에는 경과보고 신선목 대학원장, 축사 이상명 장신대 총장, 박형은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축가 WMU 음악과, 인사 및 광고 이금희 대학원장이 각각 맡았다.

박형은 목사는 축사에서 “한인신학교로는 최초로 ATS 인준이 되었다는 것은 책임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상메시지를 전한 인사들 또한

“WMU가 이제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에 대해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학을 더 크게 사용하리라 믿는다”고 한 목소리로 축하의 뜻을 전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지난 8월초 대학원 과정에 대한 ATS(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신학대

학원협의회)의 정회원 인준을 한인 기독교 대학교 중 최초로 취득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ATS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풀러, 탈봇, 아주사피 시픽, 클레어몬트 등 북미주 지역 신학대학원이 가입한 학력인증기관으로서 신학교육기관들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권위있는 단체로 알려졌다.

## 한미기독교회관건립기자회견



왼쪽부터 서요한 목사, 김영 장로, 이운영·백지영·정준윤 목사

### >> 1면으로부터 기사 받음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이운영 목사는 “시정부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이제 더이상 (회관 건립이)유야무야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번 자금이 원로목사님들을 위한 관광에 유용된 부분이 있지만, 현재 전직 회장이 기금 5000불을 입금하신 상태다.

회관 건립을 위해 교계 단체장들은 자동적으로 운영이사가 되도록 정관을 구성할 것이다. 앞으로 기금 마련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영 남가주장로협 수석부회장은 “시정부로부터 약속한 기독교회관 부지를 얻기 위해 보좌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한인교계와 한 약속을 이행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목사회가 마련한 은행 트러스트 계좌는 월서스테이트뱅크에 오픈되어 있으며, 이는 회관을 구입하기 전에는 일체 사용이 금지되는 계좌이다.

10월에 열리는 일일식당에서는 투고(To-Go)가 가능하다.

▷문의: (213) 819-4000(이운영 목사), (323) 708-9191(백에스터 목사), (213)284-1212(김 영 장로)

토마스 맹 기자

### 최대 교단 SBC 군목들에게 동성결혼식 참여 금지

미군 내 친동성에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 위반시 교단 소속 말소

미국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SBC)가 교단 소속 군목들에게 동성결혼식 주례, 참석, 피로연 참석을 모두 금지했다. 남침례회는 미국 전체 군목의 18%에 해당하는 1400여 명을 군에 파송한 상태로 전체 종교 가운데 가톨릭 다음으로 많다. 군목 한 명 당 사목하는 군인 수는 5백명에서 7백명에 이른다.

남침례회 국내선교국(NAMB)은 최근 이런 결정을 내리고 군목들에게 하달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남침례회의 교단 소속을 말소 시키기로 했다.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결혼보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후, 미국 내에서 가장 먼저 동성결혼자의 권익을 신장시킨 곳은 군대였다. 이성결혼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소위 “동성결혼자 전용 10일 유급 휴가” 및 각종 세금 혜택이 군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변화에 위기감을 느낀 남침례회는 강력한 규정을 제시해 군목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고 자는 의지를 표명했다. 군목으로 목회하려면 반드시 교단이나 기독교 선교단체의 파송이 필요하기에 현 군목이 교단의 방침을 어겨 파송 상태가 철회되면 자연스럽게 군목직도 상실한다. 남침례회가 파송 철회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든 것도 동성결혼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단 관계자는 “우리는 경건의 길을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타협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남성과 여성의 영혼을 목회하자”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SF코팅으로 더욱 더 고급스러워진 HD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 전후방 또는 실내를 항시녹화**

**영상 보정 기능으로 정확한 영상 분석/LCD 영상 재생 / 확대보기 기능**

**고성능 GPS 센서 내장/ 속도, 위치, 시간, 방향까지 확인**

**Battery 방전 방지 시스템**

구입문의 : **Joseph Park** 213.235.7836  
www.carblackboxstore.com 310.902.3944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는 11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며,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 남가주 한인기독교 원로목사회 제64회 총회 개최

### 신임회장에 유응연 목사 선출



남가주 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장 이기홍 목사(가운데)가 신임 회장단을 소개하고 있다.

남가주 한인 기독교 원로목사회(회장 이기홍 목사)는 지난 5일 제64회 총회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미장로교회에서 열고 신임회장에 유응연 목사를 선출했다.

신임회장에 선출된 유응연 목사는 “말은 자는 충성되게 일하라는 말처럼 원로 목사회 회원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제1부회장에는 이태환 목사를, 그리고 제2부회장에는 임순삼 목사를 각각 선출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이태환 목사가 기도를, 유응연 목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라무열 목사의 축도로 순서를 마쳤다.

##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기, 부부 갈등 해결의 첫 걸음

### 에브리데이교회 송지혜 강사 초청 부부 세미나 열어

에브리데이교회(최홍주 목사)에서 4일 오후 부부세미나가 열렸다. 강사에 피아니스트이자 MBTI(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융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한 심리검사) 전문강사 송지혜 교수가 나섰다.

결혼한 지 31년째에 들어선 그는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피아니스트였던 자신이 MBTI 강사로 서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는 “결혼에 대한 기대와 달리, 하루 하루를 울지 않고는 살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결국 어느 날 그는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나는 당신의 기준에 절대로 맞출 수 없어요. 결혼 전과 후를 비교하면, 결혼 전에는 행복했는데 후에는 한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결혼 첫날 세수를 하다 옷이 젖은 자신에게 남편이 잔소리를 한 일화에서 시작해, 자신이 얼마나 수많은 잔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했는지 이야

기했다. “결국 모든 일에 걸고 넘어져 하루 하루가 무서웠어요.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나 스스로도 나를 잘 못된 존재로 여기게 됐죠. 나 자신을 불량품이라고 생각했어요.”

“1995년, 하와이 열방대학의 MBTI 강의를 들은 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MBTI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데, 각 항목을 가만히 보니 내 모습이 아닌 남편이 나에게 주입 시킨 모습대로 체크를 했지 뭐예요. 그때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따라 살았음을 깨달았죠.”

MBTI는 주의초점, 생활양식, 인식기능, 판단기능의 차이에 따라 총 16가지로 성격을 구분한다. 주의초점 즉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외향(Extroversion)과 내향(Introversion)으로 나뉘며, 생활양식에 따라 판단(Judging)과 인식(Perceiving)으로, 무엇을 인식하는가에 따라, 감각형(Sensing)과 직관형(Intuition)으로, 어떻게 결

정하는가에 따라 사고(Thinking)과 감정(Feeling)으로 나뉜다.

송 교수는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활동적인 외향형이 자기 안의 에너지를 외부로 통해 즉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는 반면,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조용히 생활하는 편인 내향형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충전한다. 즉 이 둘은 자신 안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 상반되기에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향형인 남편은 하루 종일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다가 에너지가 모두 방전된 채 집에 돌아와 조용히 혼자 쉬고 싶어한다. 그런데 부인이 외향형일 때, 부인은 힘들어하는 남편을 충전해주려고 말을 건다. 그럼 내향형인 남편은 부인 때문에 더 지치게 되고, 부인은 자신이 될 잘못했나 하며, 의기소침해진다”고 했다.

송 교수는 외향형과 내향형을 성격의 차이로 설명하기도 했다. “외향은 외부와 자기와의 경계가 없거나

희박하다면, 내향은 매우 강해요. 따라서 외향은 낮은 이들에게 선뜻 다가서 격의 없이 대하는 반면, 내향은 쭈뼛거리며 주변을 맴돌죠.”

또 그는 반응 속도의 차이를 지적했다. “내향은 일단 행동하고 생각하는 외향에 비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따라서 외향형인 사람이 내향형인 사람을 대할 때는 생각할 시간을 주고, 내내심을 갖고 대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송 교수는 정리형(판단형)과 개방형(인식형)을 소개했다. 그는 “정리형은 자신의 기준, 방식이 명확하며, 세부적인 부분에 민감한 반면, 개방형은 특별한 기준 없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세부적인 부분에 둔갑한다.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자신의 가방이나,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정리형은 가방이나 주변 환경이 산뜻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선호한다. 작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으면 꼭 그것을 바로 잡으려

한다. 개방형의 가방은 뒤죽박죽이며, 뭐가 들어 있는지 자신도 잘 모른다. 흐트러진 부분이 있어도, 개방형의 눈엔 안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두 생활양식의 차이는 시간관념이나 약속 지키기 등에서 두드러진다. 정리형이 시간관념이 철저하다면 개방형은 느슨한 편이다. 따라서 정리형은 개방형 배우자에 대해, 자신의 방식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한다. 정리형 배우자를 둔 개방형은, 배우자가 계획,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송 교수는 성격검사를 받던 중에 일어난 한 에피소드를 강의 말미에 소개했다. “설문 용지에 체크를 하던 중 남편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왜 체크란 안에 표시를 안하고, 벗어나게 하나, 나는 더 대답하고 크게 체크란을 벗어나게 체크했어. ‘절대로 이 좁은 틀 안에 갇힐 내가 아니지’ 하면서 말이죠. 하하”

주디 한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특별무술수기법에 의한 완고한 통증(요통, 오십견, 무릎관절통, 좌골신경통 등)의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태바 선교후원회 부설 · 다나병원의 수익금 전액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약도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 영상설교 교회 영상물 제작 세미나 열린다

영상설교아카데미 LA지부 주최  
24일 오전 LA 시크릿가든서

IT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목회 환경 또한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효과적인 전도수단 중 하나인 영상설교와 교회 영상물 제작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오는 24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LA한인타운에 위치한 시크릿가든 식당홀(Olympic+westlake)에서 열린다.

영상설교아카데미 LA지부 주최로 열리는 세미나 강사에는 지부 임원인 양경선 목사(남가주교회 총무)와 임인철 목사(한미장로교회 부목사), 한주식 목사(현대설교연구소 소장)가 나선다.

세미나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은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3D, 플라주, 포토샵, 포토스케이프, 파워디렉터, 동영상 편집,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스마트폰 100% 활용법, 김프, 한쇼, 캠타시아, 무비메이커, BT(글자 데코), 오켄 등의 내용으로 꾸며진다.

영상설교 아카데미 LA지부 회장 광부환 목사(한마음제자교회 담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프로그램이 파워포



(왼쪽부터)영상설교아카데미 LA지부의 임인철 목사, 광부환 목사, 광소건 목사, 한주식 목사.

인트다. 글과 사진 등 넣는 모든 프로그램을 숙지하도록 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성경에 나오는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설교시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 교육을 지금까지 2500여명의 한인 목회자들이 받았으며, 미주에서는 뉴욕을 비롯해 필라델피아, 시애틀, 샌

프란시스코, LA 등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오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복음서 설교를 파워포인트로 각자 제작해 공유해보도록 과정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미국 교육 현장에선 아이패드와 지급되고 한국도 전자책으로 공부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커뮤

니케이션 시대에 청중들과 효과적인 소통하는 방법은 결국 영상이라고 본다"며 "중소형 교회는 영상을 다루는 인적자원이 적지만, 목회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영상물을 이용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 이번에 LA지부에서 회원 목회자들이 교육에 참여해 봉사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설교 현장에서 파워포인트 및 영상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광소건 목사(실버아카데미 대표, 남가주중부교회 협회장)는 "영상 사진과 3D를 이용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적용시켜 말씀을 전하면 어르신들이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실버사역에서도 많은 편리함을 준다"며 "웹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리면 브라질에서 실버세대 자녀들이 보고 격려의 말씀을 주기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광부환 목사는 "설교시 직접 영상 도구를 이용해 바울 사도의 선교여행이라든지 이스라엘 지리를 설명할 때 청중의 집중이나 이해도를 높이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은 노트북을 지참해야 하며, 등록은 장소 관계로 선착순 50명으로 제한된다. 등록비는 10불(점심제공)이며 추첨을 통한 경품으로 노트북이 마련된다.

한편 세미나 후원은 남가주교회, 남가주중부교회, 기독교일보, 레이저비전, 한국장로총회, 노트북샵닷컴, 실버아카데미, 코리아간접영양로원이 한다.

문의: (213) 321-4433(광부환 목사), (213) 255-1725(양경선 목사) 토마스 맹 기자

## LADWP, 정부 에너지정책·혜택 관련 세미나 개최

태양광 패널을 통한 전기절약, 물 절약 프로그램 소개돼



LADWP 주관 정부 에너지정책 혜택 관련 세미나가 지난 7일 LA기쁨의교회에서 열렸다.

LADWP(LA시 수도전력국, Ms. Leslie McKay-Martin-Senior Manager)가 주관하는 오바마 정부 에너지정책과 혜택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7일(토) 오후 3시에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기쁨의교회(3938 Wilshire Blvd)에서 열렸다.

태양광 패널 시공사인 앰그린 솔루션(AmGreen Solutions)이 협력 주최한 이 세미나는 LADWP의 2013년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함께 도와가는 커뮤니티'라는 취지와 함께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설명했으며, 한인단체와 한인 언론사 관계자 및 파트너 회사들이 초청됐다.

이날 약 80여명 정도가 참석했으며,

내용은 태양광 패널을 통한 전기절약, △절수형 변기와 절수형 샤워기를 통한 물 절약 프로그램 등 캘리포니아 한인 커뮤니티가 여태까지 잘 몰라 누리지 못했던 혜택에 대해 다루었다. 세미나 후에는 많은 혜택에 대해 질문과 상담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번행사를 후원하고 주최한 앰그린솔루션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LADWP, EDISON 등의 공공기관과 함께 정부에너지 정책과 혜택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세미나를 한인 사회에 정착시켜 나가고 싶다"고 계획을 밝혔다.

문의:(213) 388-5652, (213) 434-2834(Ted Suh)

토마스 맹 기자

**초스피드 다이어트** **미용침** · 얼굴축소 (안면지방제거)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매끼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분

**\$50** 한달분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위 미드웨이)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바이블 아카데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성경원전 및 서양고전 연구원" 은 그 이름을 "바이블 아카데미" 로 바꾸고 이번 10월 7일부터 유인대학교 신학대학과 제휴하여 다음과 같은 강좌들을 개설합니다.

**강좌 소개**

- 1. 월요일(저녁 7-9시): 성경희랍어 I**  
희랍어 성경원전을 읽기 위한 희랍어강좌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희랍어는 물론 희랍의 문화와 사상과 함께 희랍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희랍사상과 히브리사상과의 차이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수강료: 3개월에 100불)
- 2. 화요일(저녁 7~9시): 사도바울의 희랍선교**  
사도행전 16~18장에 기록된 사도바울의 희랍선교를 당시의 사상적-문화적 배경에서 새롭게 조명하여 성경과 함께 희랍문화와 사상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강료: 무료)

**강사 소개**  
**서승원 목사 (Ph.D)**

**학력**  
1972년 :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수학과 졸업  
1974년 :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미학과 졸업  
1977년 :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졸업  
1977~1991년 : 14년간 희랍국비장학생으로 국립 아테네 대학교에서 고대 희랍철학, 역사, 종교, 문학 등 고대희랍문화 전반에 관해 연구  
1991년 : 동대학교에서 "플라톤의 국가, 교육 예술"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 취득 (Summa Cum Laude)  
1999년 :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박사과정졸업  
2000년 : 교수들의 추천으로 2년간의 Full Scholarship을 받고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로 전학  
2002년 :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신약학 전공) (재학시 학생 및 교수들을 지도)

**경력**  
1992년 3월~1994년 7월: 서울대학교, 숭전대학교, 중앙대학교에서 고대희랍철학, 문학 및 희랍어 강의 (서울대 학생들로부터 비로소 강의다운 강의를 듣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1995년~2011년 : 월드미선대학교, 베데스다대학교, 미주총신대학교 등에서 신학, 철학, 희랍어, 히브리어 강의. (학생들로부터 한국제일의 신학자라는 호평을 받음)  
2013년 현재 : 유인대학교 신학대학장 및 Bible Academy 원장

**장소** : The First Baptist Church  
**주소** : 760 S Westmoreland Ave, #14-16, LA, CA 90005 (8가 @ 버몬과 후버사이)  
**전화** : H, 213.386.6632 / C, 213.200.9174  
**e-mail** : syngwonsuh@yahoo.com



# 회복의 기쁨을

## 스바냐 3:14-2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개인이나 국가나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실 때에 그 대상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면 그들을 가장 소망적이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분에 넘치도록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심리가 둔해지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즉 죽은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육신과 정신, 경제적 환란과 시련을 겪게 하심으로 견디기 어려워사라도 죽지못해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냈던 믿음을 바로 세우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도 합니다.

### 죄와 심판

스바냐서는 하나님이 섬기신다는 뜻의 스바냐가 하나님 앞에 반하여 기록한 말씀인데 예루살렘과 유대나라가 100년 전에 망한 북쪽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에게 BC722년부터 완전히 멸망해버린 것을 보면서 그들이 각성 분발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하나님은 100년이나 참고 기다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사마리아를 수도로 했고 남쪽은 유대국이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했습니다. 이 형제나라가 때로는 싸우는 일도 있으나 북쪽이나 남쪽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매를 맞거나 환란이나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남은 다른 한 나라가 각성 분발하는 재료거리로 제시하는 일들도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와 같이 내가 유대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의 남아 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람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좃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슌:2:6)” 이 말씀은 이 세상 끝날에 불신대상은 완전히 전멸시킬 것에 대한 경고적 예언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스바냐 3장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3:1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에서 포악한 그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이란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므로 하늘의 평안을 보장받았던 예루살렘이 폭군들에 의해서 패역하고 성읍이 온갖 죄악으로 차고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남의 이야기처럼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믿음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

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 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방백들은 교회로 말하면 장로를 말합시고 부르짖는 사자는 위협을 주어 강탈하려는 자를 의미합니다.

4절에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목회자들이 영적 성과를 위한 목회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 인간적으로 자기 이득을 챙기자는 식으로 목회자가 타락한 인간들의 편을 이해해주는 입장으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훗날서 죄악의 길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는 칼날 같은 말씀으로 찢리고, 녹아지고, 깨짐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영혼이 구원 얻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12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하여 책임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모습으로 교만하고 도도하게 회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그 교회의 목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참 진리의 목자라고 하면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칼날같이 죄를 지적하여 책망하고 회개시킴으로 그 영혼이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거듭나는 구원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회개와 회복의 기쁨

어느 교회가 개혁을 해서 11년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그간 140여명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열심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은 대학교수로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신앙인격이 하늘소망을 바라고 목자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교회 은혜 분위기 조성에도 숨은 봉사자로 힘쓰고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자기가 힘껏 애쓰는데도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그 교회 목자의 목회에 큰 힘을 실어주는 아주 인격적인 분이었던 것입니다. 또 B라는 다른 한 분은 사업이 잘되어 돈은 많이 벌였으나 항상 말을 할 때도 자기생각으로 말을 하고 자기의 생각이 저지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위협적인 태도로 변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넓혀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A는 가진 것은 없으나 많은 사람들로 즐거움에 참여케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B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해야 자기를 알아주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다른 사람은 헌금할 필요 없이 내가 다하면 된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 후 자그마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헌예배를 드리면서 앞서 말한 두 사람을 장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B장로는 제직회가 되면 목자의 입장이 무색할 정도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계통 질서가 엉망이 되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년이 지나는 동안 어느 누구도 그 장로에게 한

마디의 권면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번 우회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교회를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A장로는 날마다 B장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지내는데, B장로는 A장로를 바보스럽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하던 사업 중 하나가 잘못돼 무너지면서 나머지 사업체마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자신의 허세와 자존심의 손상만을 생각하다 더 신경질적으로 변해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아무리 검사를 하여도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병명을 알 수 없으나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B장로는 다른 병원에 가서 또다시 검사를 했으나 똑같은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향에서 함께 자란 동기생 중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친구가 아프다는 소리에 그 친구를 보기 위하여 B장로를 찾아왔습니다. 친구를 만난 후 이 목사님은 B장로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 왜 회개시키지 못하셨냐고 묻자 회개하라하면 목사님이 회개하셔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에게 무슨 말을 더하겠냐고 하더군요. 그간의 정황을 다 들은 후 다시 친구를 찾아간 목사님은 이대로 지옥가고 싶지 않다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지옥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권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회개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장로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치신 것이라고 알려주고 지극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해야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받아 지옥 길은 면할 수 있지 않겠냐고 간곡히 권하고 기도하던 중 B장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의 회개가 시작되고 일주일을 밤낮없이 기도하고 평안이 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우선 목사님을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A장로를 찾아가서 그동안 자신이 교만했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이 나았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면 그 믿음이 모범이 되고 은혜와 덕을 끼치는 일에 앞장서고 목

회하는데 더 힘 있는 뒷받침으로 참여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예들을 볼 때 오늘이 말씀이 너무나 절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남기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끈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거라 하십니다. 회복을 보장받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은 주위 사람들이 모두 불의와 강포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약하고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행패하며 온갖 모양으로 괴롭혔지만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부르짖고 매달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셔서 마귀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이제 그들의 시대로 회복케 주실 때 회복되어지는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이 회복 받는 그들보다 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탓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 믿음은 자신이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신앙생활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있다하더라도 마귀가 보기에 그 아내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전에 쓰러뜨리려고 하는 온갖 행패임을 깨달아 그 모든 상황을 불평과 핑계거리로 삼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나의 가운데 계시니...”했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핍박하는 이를 불쌍히 여겨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9절에 “그 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너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하십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근심시키면서 내가 기쁨을 얻고 유익을 얻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기꾼과 같습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참 신앙인은 영적 신앙으로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붙들리고 매달려 믿음으로 성공하는 승리가 될 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뒤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쁨이 넘치도록 회복의 역사가 서둘러진다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3시반 / 동부 오후6시반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6시 / 동부 오후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사가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기독일보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b>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b> <b>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교회 회장.</b>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호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b>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b>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9월 9일 개강**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신학교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신학교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_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 부목사 청빙 광고

San Francisco Bay 지역에 위치한 콘트라코스타 한인장로교회(PCUSA)에서 함께 동역할 풀타임 부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신청 자격:**

1.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분
2. 5년이상 목회 경력이 있으신 분
3. 이민교회에 대한 이해와 사명을 갖고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하실 분
4. 목회 행정, 제자 훈련 및 목회 전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분
5.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2. 신앙 고백서
3. 자기 소개서 및 증명사진(가족사진 If married)
4. 학력 증명서
5. 추천서 2부
6. 목사 안수증 사본
7. 설교 CD 2개

\* 1차 심사후 기타 증명서를 요청할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감: 2013년 9월 30일  
연락처: 콘트라코스타 한인장로교회 인사위원회  
(최용훈 장로: cckpc.choi@gmail.com 9258992916)

**CONTRA COSTA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전성호 CCKPC.ORG  
2460 Old Crow Canyon Rd, San Ramon, CA, 94583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4:10)

##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 대회

장애우 사랑교회에서 1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라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찬송 친치를 엮니다. 모든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기도, 봉사, 마음, 시간을 내셔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매시간**

중양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06 S. Bonnie Brae St. L.A., CA90057	그랜드 파크 양로병원 Grand Park Convalescent Hospital 2312 W. 8th St. Los Angeles, CA, 90057
1차 찬양대회: 2013년 6월15일 토요일 오전10시	부활절 예매: 2013년3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2차 찬양대회: 2013년 12월21일 토요일 오전10시	추수감사절예매: 2013년11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성탄절 예매: 2013년12월20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 봉사자들을 구합니다 \*\*\*

**협찬** 남가주 교회협의회, 남가주 한인 목사회, 영애 사랑교회, 믿음의 우산을 전하는 선교교회, 데이빗 백 변역사 그룹, 미동원 변역사 그룹, 거주 임로호텔, Lahenco, Inc. 세일리 저동차, 남가주 총회도도단체,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 사랑교회 T. 213-705-0404 F. 213-251-8930 P.O.Box 742017 LA., CA90004

###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면...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뭐가 깨질까요? 당연히 계란이 깨어지겠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무모한 일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강함' 앞에서 '연약함'을 대비시킴으로써 연약함은 결코 강함을 이길 수 없음을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함'을 좋아합니다. 강할 때 무시받지 않고, 강할 때 비로소 성공을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강해지기 위해 힘을 키웁니다. '완력', '학력', '재력', '체력'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연계의 원리는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것'은 '강한 것'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약육강식의 원리'는 항상 맞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약한 면으로 보자면 현미경 없인 볼 수 없는 미생물의 감염에 의해 맹수의 제왕이라는 호랑이나 사자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몇마리 모기의 습격에 의해서 거대한 몸집을 가진 코끼리가 도망을 치기도 합니다. 학벌로 치자면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 자신보다 뛰어난 학력을 가진 무수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사업을 펼쳐가기도 합니다.

역사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절대적 원리가 아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아시리아, 마케도니아, 로마제국, 오스만제국, 나치독일, 파시즘 이탈리아는 패망국가가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침략하여 무너뜨리려 했던 약소국들 가운데 어떤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며 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대표적 국가입니다.

'강하기에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에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함'을 추구하기에 앞서 '결론'부터 살펴보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진리의 보고인 성경은 '계란으로 바위를 부순 사건'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음을 증언합니다. 세계최강 이집트 최정에 전차부대가 비무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이기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전투체계를 갖춘 견고한

여리고성은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 침묵시위를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 무장한 싸움의 달인인 거인 골리앗은 물맷돌 몇 개만을 들고 돌진하는 소년 다윗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족 청소를 목적으로 하였던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 하만은 힘없는 여인 에스터의 기도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져 버렸습니다.

'강함'은 '완력', '학력', '재력', '체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함'은 '연약함' 속에도 존재합니다. 너무도 우습게 보이는 '약함'이 '강함'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체의 가치'로 약하여졌을 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강함'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약함'에도 강력한 힘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약함'으로 인해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하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함 속의 큰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꼭 계란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더라도 바위가 깨어지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7)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무너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특히 권력, 명예, 사업, 건강, 가정, 신앙 등은 우리가 나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다. 무너짐을 경험한 자는 고통과 싸워야 하고, 외로움과 싸워야 하고, 소외됨과 싸워야 한다.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면 좌절하고 낙망하게 된다. 오늘은 무너짐에 대해 생각해 보자.

#### 땅에 있는 장막 집은 무너져야 한다 (고후 5:1)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했다. 바울이 땅에 있는 장막 집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은 타락한 아담 안에 있는 속성들을 말한다. 특히 인간의 탐심과 욕망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이 속성들은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야 할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죽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죽은 몸(자연적인 몸)에 참여하지 않고 생명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즉 세상적인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다.(고후 5:9) 이 옷은 겉모습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속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의 옷으로 바뀌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람은 내면의 성품이 중요하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 안에서도 옷 잘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권좌에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힘 없고 가난해 보이면 가까이 하기를 싫어한다. 잘못된 행위들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사람에게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성숙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영, 혼, 육(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산 삶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후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가 내려지기를 바라는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책망과 칭찬이 따를 것이다. 당신이 지금 무너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시다.

세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옛집은 무너져야 한다. 그리고 무너진 잔재들을 치우라. 무너짐과 새움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이 고난의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후일에 고난이 복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삶은 탄식하는 삶이지만 영적으로 성숙하면 죽음을 이긴 생명적인 삶이라 기쁨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글=이영두 목사  
호크마신학대학교(hokmahcollege.com) 학장 역임  
엘에이살롬장로교회 담임목사 역임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  
호크마신학대학교 영성신학박사

### Three-Level English Education <3단계 영어교육>

#### English (초급 영어)

>I have some problems in my apartment.  
제 아파트에 문제가 좀 있네요.  
>What kind of problems do you have?  
무슨 문제인가요?  
>The shower leaks and the wall in the living room has a big crack.  
샤워기에서 물이 샐니다. 그리고 거실 벽에 큰 틈이 생겼어요.  
>Write a letter to your manager. He will fix them.  
매니저에게 편지를 한 번 써 보세요. 그럼 수리해줄 겁니다.  
>Does the stove in your kitchen work?  
키친 스토브는 제대로 작동되나요?  
>Yes, it is all right. I can cook well.  
네, 좋습니다. 요리를 잘 하고 있는 걸요.

#### English (중급 영어)

Phillip then found Nathanael and said, "We have found the one that Moses and the Prophets wrote about. He is Jesus, the Son of Joseph from Nazareth." Nathanael asked, "Can anything good come from Nazareth?" Phillip answered, "Come and see."  
  
그리고 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보고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분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분이 예수, 즉 나사렛에서 오신 요셉의 아들이다. 이에 나다나엘이 묻기를 "나사렛에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니 빌립은 "와서 보란 말이야"하고 대답했다.  
  
English (고급 영어)  
Leaders possess unique inborn traits

from the moment of their birth. Some are marked for subjugation and others for command. The best predictor of leadership ability may be derived from the family background. On the other hand, the scholars in the Social Science Studies Group assert that leadership abilities and skills are learned after receiving training.

지도자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유의 타고난 소질을 갖고 태어난다. 어떤 이는 복종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지배하는 모습으로 정해져 있다. 지도력에 대한 측정은 가정 배경에서 온다고 한다. 반면 사회과학 분야 학자들은 지도에 관한 능력과 기술에 대해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자료 제공  
아메리칸침례대학 배효식 교수



Dealer No. 62655 www.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Cell. 323-737-5900

마태복음 5:3-10(8복)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혜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323-737-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순종 테스트에 합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한마음제자교회

곽부환 목사

본문 : 사3장1~1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니 남게 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게 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그들을 메소보디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팔 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윗니엘이라

여호와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디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니 윗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사십년에 그나스의 아들 윗니엘이 죽었더라”(사3장1-11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옮기시고 윗니엘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윗니엘을 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뤄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들을 주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자기 육체의 욕망을 좇아 살아가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뤄지길 원하는 시험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이 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니다. 하나님은 순종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순종테스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1, 2,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4절의 마지막에도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순종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미지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나아가게 하셨고 그는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옴으로 순종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모리아 산에서 외동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온전한 순종을 다함으로 늦게 얻은 아들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을 통해 구원자를 오게 하십니다. 또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알고 보면 이 순종 테스트에 합격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자꾸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다윗도 목동이었고 변변치 못한

자였습니다. 사울의 왕위를 받은 다윗을 보십시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누명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살았고 무고한 자를 죽이려는 사울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원했고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주셨습니다. 순종테스트를 통과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아버지에게 집중시키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순종 테스트에 합격하시어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온 인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나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에 소탐대실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좇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육체의 욕망과 가나안 사람들의 습성과 생각을 멀리해야 합니다.

순종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통과하고 지속적으로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가 또한 세상이 눈에 보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갑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맞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의 욕망, 돈의 욕망, 명예의 욕망, 말의 허

물이 많습니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순종테스트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영광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 테스트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7절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인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시는 그 복을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악함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길 간구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성령을 힘입어 순종할 수 있게 모든 영역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합시다.

**한마음제자교회는?**

올해로 창립 13년째를 맞이한 한마음제자교회는, 세속주의가 난무하는 이 시대 어떠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 한 믿음과 한 소망, 한 성령 안에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비전 하에 바벳크 지역에 위치한 한 가정에서 자그마한 성경공부 모임에서 시작했다.

교회 창립 이래 전 교인이 한 마음으로 제자된 길을 걸어오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여오고 있다.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라" (시편 96:2)**

**제1외 자녀사랑 찬양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사역을 위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목사  
이사장



김영길 목사  
대표

**일 시: 2013년 9월 22일 오후 6시**  
**장 소: 감사한인교회 본당**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특별출연: KAIROS MISSION WORSHIPDANCE (김민경 선교사)**  
**참가문의: 사무총장 전동은 목사 (714) 904-6298**  
14241 Imperial Highway., #G La Mirada, CA 90638  
**주 관: 남가주 중부 교회협의회(곽소건목사)**

후원: 크리스찬비전, 미주크리스찬신문, 기독교일보, 크리스찬월드, 크리스찬위클리, 크리스찬헤럴드, 크리스찬투데이(무순)

독자 신앙간증 | 추원호 목사

##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뇌출혈로 2주 이상 생사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던 이기욱 권사님에 대한 글입니다. 권사님께서는 이전에도 한두 번 쓰러질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서 10일 이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여 가족들의 마음을 초조하게 하는 동시에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의식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장례를 치르기를 재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박상철 장로)님께서 저(추원호 목사)에게 전화를 주셔서 어머니와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 막역한 사이였으므로 병원에 와서 기도해주시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전화를 받고 집사람과 함께 UCI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권사님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래도 좀 더 사셔야 하는데”라며 슬픔에 잠겨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부족한 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가까운 지나 임종시 부르는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힘껏 불렀습니다.

성경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58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증거했습니다. 말씀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드님 박 장로님께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고 했습니다. 박 장로님은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교회(동부사당 의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준비했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모 든 것을 인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은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만을 의지합시다”고 말씀드 리고, 병원 문을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지 못하고 초조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예배시간에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날마다 소식을 물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니 ‘목을 뚫고 옆구리를 찔러서 산소를 공급하는 수술’을 병원의 요구대로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전 가족을 모아서 최 후결론을 내리자는 병원의 요구대로 한 국에서 가족도 오게 해 마지막을 대비 하게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아드님의 안타까움을 듣고서,

권사님과 신앙생활도 함께하시고 양로 병원에서 친구같이 지내신 영종립 권사님께 전화로 이기욱 권사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얼굴이라도 보게 “같이 가자”고 하시기에 다른 권사님 한분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권사님들과 합심해서 찬송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거두시던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있는 권사님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 렸습니다. 권 권사님은 “이봐 눈 떠 봐 나야나, 나 알겠어” 라고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 병실을 나오면서 아들 장로님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주관하시기에 병 원 측과 잘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결정을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식사도 같이하고 권사님들을 댁으로 모셔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9시경 아들 장로님의 전화를 받는 순간 슬픈 소식으로 생각하고 “예 장로님 어떠하십니까?”고 묻자마자 “목사님, 의식이 돌아 왔습니 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다고요? 어떤 상황입니까?”라고 묻자, “눈을 뜨고 사람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서, 죽은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확신하고 감사를 올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집사 탐과 같이 병원으로 달려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를 기쁘게 불렀으며 호 세아서 6장 1-3절의 말씀으로 가족들을 위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권사님의 입을 열게 하고 일으켜 세워주시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모 든 것을 드리라고 모인 이들이 다짐을 했습니다.

이후 LA에 있는 재활병원에서 하루 하루 호전돼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기쁨의 웃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병원 말대로 산소 호흡기를 빼고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의식을 회복시키고 호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어머니가 하루 속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죽으면 바로 천국 지옥으로 가는가?”

바로 천국 지옥 아니다.  
(종말론 중간기 중심으로)



김호 목사  
두란노대학교 학감

1. 목사고시 위원으로 출제 제정 면접을 하면서 종말론 중간기에 대해 부인하고 믿지않는 목사 후보생과 목사도 있고, 이렇게 알고 믿는 자들이 광범하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됐다. 신학에의 무지 내지 심각하고 대단한 이단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버리고 예수님 재림과는 관계없다는 뜻으로 성경을 이성적인 눈으로 보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본주의 이단이다.

중간기라 하면 흔히 천주교의 연옥교리를 생각하는데 이 연옥교리는 성경적이지 않다. 개혁주의 신학과 연관이 없는 교리일 뿐이다. 최고의 신조인 웨스터민스터 신조 32조는 이 중간기를 명시하고 30여 성경구절이 중간기 이론을 뒷받침한다. 중간기 처소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음부로 천국과 지옥과 다른 장소로 구별하는 학자로는 칼빈과 안토니우크마 등이 있고 중간기 처소를 다른 장소로 보지않고 천국과 지옥으로 보는 학자로는 헨드릭슨, 박형용 박사 등이 있는데 이는 잘잘못의 시비를 벌일 성질의 것은 아니다.

2. 중간기 처소에 대한 성경적 견해: 인간이 죽은 후 세상 마지막 날 백보좌 심판을 통해 영원한 천국 지옥을 선고 받기까지 머무는 처소, 중간기 처소에 대한 문제이다. 성경에 이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있다.

요약하면 최종심판은 인간이 죽은 후 즉시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마지막 날 백보좌 심판에서 이루어진다.(롬 14:10, 계20:1, 단7:10) 영생과 영벌의 장소는 천국과 지옥 밖에 없다. 성급하게 가처분이라는 단어도 등장한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마 25:46) 생명이 끝나면 더이상 최후 심판에 영향을 끼칠 회개와 범죄가 없다.

“너희 살았을 때에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 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눅 16:25)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히9:27)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중간기 처소로 돌아가고 예수님 부활시 새 육체를 가진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는 즉 신령한 몸이 있으리라”(고전15:44)

죽으면 육체는 무덤에서 부패하나 영혼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기 상태인 낙원과 음부로 들어간다. 성도들의 영은 낙원인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신자들은 음부로 가는데, 낙원은 이 세상에 비해 한없이 좋은 곳이고

음부는 고통의 장소로 지옥의 그림자이다.

사후 인간은 각각 처소에서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의식을 가진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나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나의 다섯 형제께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전해 주세요. 이 지옥에 오지않게 해 주세요” 그러나 다 끝난 이야기다. 주님으로부터 “소용없다”는 대답을 듣는다.

3. 예수님 재림 때 영혼은 육체와 결합해서 새 몸을 입고 천년왕국을 거쳐 백보좌 심판을 거쳐 새하늘과 새땅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역사적 전천년설도 있고, 예수님 공중 재림 때 성도는 휴거되고 새 육체입은 성도는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 예수님 지상재림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으로 이어지고 난 다음 백보좌 심판 후 천국과 지옥 분리를 말하는 세대주의 학설도 있고, 신약시대 즉 예수님 초림과 재림사이를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는 무천년설은 예수님 재림 즉, 세상 끝날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성도는 변화된 육체로 백보좌 심판을 거쳐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분리된다는 이론들인데, 서로 다른 이러한 이론들은 학문적 토론의 동반자로서 서로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종말론적 신앙의 희망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4. 인본주의 도전으로 중간기 이론이 도전을 받는다. 성경이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는데 도전은 무익하고 가치가 없다. 중간에 재림심판 등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래서 최고의 신앙경지를 재림신앙이라고 하지 않는가?

예수님 재림은 세상 역사의 끝이다. 기독교 역사는 직선상의 역사다. 윤회사관이 아니다. 세상 역사의 끝 그후에 일어나는 일을 사람이 알기 힘들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도 있고, 인간의 두뇌로 성경 진리의 완전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인간이 구원 얻는 지식은 충분하고도 분명하게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은 멈추어야 한다는 칼빈의 말은 옳은 말이다.

중간기 상태에 대해 이해함으로 믿음으로 보다 준비되고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고 성경도 보이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줄을 믿는 바다.

참고 도서  
박형용 《조직신학 종말론》, 안토니우크마 《조직신학 종말론》, 《통신 주석성경》

## 역지사역과 자의사역

주님의 사역을 하다보면 항상 고갈돼 가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접하게 된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 근래 빌레몬서를 읽고 말씀을 전하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며 다시 새로운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빌레몬서 1장 14절 '다만 네 승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선한 일이 역지사역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소중한 글을 쓸 수 있었던 사도바울은 아마도 대단한 주님의 종이였음이 분명하다.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배경은 사도바울의 사역이 자신의 사역이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한 데서 나온 것이며 또한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사역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자신이 가진 영적 권위와 시대적 사명이 부여해준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당연히 자신을 돕고 협력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었지만(8절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돕는 동역자들의 의중과 사역에 대한 승락을 겸손하게 물어봤다는 것은 오늘날 사역에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상당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선한 일'이라는 것이다. 비록 인간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모든 사역의 배후에는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비록 추하고 더럽고 죄악에 물든 우리들의 손으로 감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히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14절 참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선한 일'이

역지사역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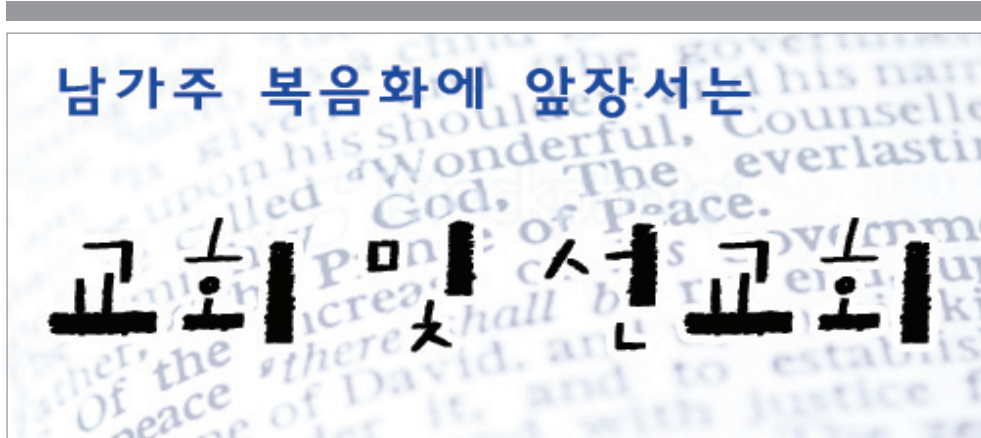
이 말씀을 나는 후 뒤늦게 깨닫게 된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바로 주의 사역을 돕는 자들의 협력역이 역지로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직 자의로 그래서 기쁨으로 그리고 감격해서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바울이 빌레몬에게 바랐던 것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이는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되풀이하고 있는 실수이기도 하다. 바로 자신이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만 가장 좋고 선한 사역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비록 나오는 다른 생각과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역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 역지사역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라 생각한다.

무지한 사역자들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과 대화 속에서 자유함을 주셔서 이해하도록 도우신 주님의 은혜의 물결에 감사를 드린다. 늘 무익할 수밖에 없는 것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또한 느낀다.

무엇보다 모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더 많은 격려와 그리고 보살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교제로 나아가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선물일 것이다. 모두가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바란다. 이 미련한 글 한 토막을 읽고 자신감에 사무쳐 또 사역의 길을 가게 될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깃들기를 바란다.

글=만남의 교회 최사무엘 목사



**LA 지역**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p> <p>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p> <p><b>한천영 담임목사</b></p> <p><b>갈릴리션교회</b>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5 금요일오후 7:00</p> <p>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오전 6:00 (토) 유초등부 오후 12:30 중고등부 오후 12:45</p> <p><b>강진웅 담임목사</b></p> <p><b>갈보리민음교회</b> 백천 세계 비전!</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말-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p> <p><b>엘리아 김 담임목사</b></p> <p><b>나눔과 섬김의 교회</b>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p> <p>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b>박현성 담임목사</b></p> <p><b>나성열린문교회</b>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p> <p>1925 Wilshire Blvd, LA / T. (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소 3119W 6th, LA, CA 90020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p> <p>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b>진유철 담임목사</b></p> <p><b>나성순복음교회</b>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p> <p>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저녁 8:00</p> <p><b>영아예배 담임목사</b></p> <p><b>나성한인교회</b></p> <p>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p> <p>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p> <p><b>김광삼 담임목사</b></p> <p><b>나성제일교회</b>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말-금) 오전 10:30 (수)</p> <p><b>정우성 담임목사</b></p> <p><b>남가주광염교회</b> 말씀과 기도로 비샤하는 은혜공동체</p> <p>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p> <p>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p> <p><b>김요섭 담임목사</b></p> <p><b>남가주리디머교회</b>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p> <p>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p> <p><b>김성광 담임목사</b></p> <p><b>성재복음선교회</b> 은 성도가 생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하는 교회</p> <p>3313 W. Pico Blvd, 2F # A, LA, CA 90019 T. (213) 327-9200, T. (213) 598-9932</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p> <p>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p> <p><b>서건오 담임목사</b></p> <p><b>새로남교회</b>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p> <p>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c.net</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EM예배 오전 9:30</p> <p>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p> <p><b>최운형 담임목사</b></p> <p><b>세계선교회</b> 하나님의교회, 사랑의교회, 세상속의교회</p> <p>927 S Menlo Ave, LA, CA 90006 T. (213) 388-1927, 388-2105</p>
<p>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p> <p>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p> <p><b>조인수 담임목사</b></p> <p><b>써니사이드교회</b>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p> <p>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b>김세담 담임목사</b></p> <p><b>엘에이연합감리교회</b>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p> <p>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50 3부예배 오후 12:00 4부예배 오후 2:22</p> <p>EM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말-금) 오전 5:25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p> <p><b>정장수 담임목사</b></p> <p><b>올림픽장로교회</b>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p> <p>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 F. (213) 381-2201</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p> <p><b>이명수 담임목사</b></p> <p><b>청운교회</b> 선교에 호를, 소, 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관의 호를</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p> <p>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p> <p><b>신승훈 담임목사</b></p> <p><b>주님의영광교회</b>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p> <p>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b>김세담 담임목사</b></p> <p><b>지구촌 농업선교회</b> 부설 : Naturo pathy Clinic(말-금) 전료문의 213) 505-7067</p> <p>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p> <p><b>이명수 담임목사</b></p> <p><b>충현선교회</b> 텔레시(Call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Interfaring)</p> <p>5005 Eder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2:00</p> <p>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오전 6:20(토)</p> <p><b>김기섭 담임목사</b></p> <p><b>LA사랑의교회</b> 평신도를 배우고 이단으로부터 지키며, 이단자들과 화해하여, 선교를 행하는 교회</p> <p>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p>



# 교회혁신교회

##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백성현** 목사, **백성영** 목사

베리나 및 수양관 사용  
여러문의 환영

**주의사랑 선교 수양관**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교육센터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T.(714)932-8993, (760)868-858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창년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사우스 베이 지역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r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45/2부 11:45  
2부예배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4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대홍장로교회**

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의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문명(通)하여 민사형통함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어우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할-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세교무반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힐로우쉽)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 (분당)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 헬레니즘과 유대이즘의 의미(2)

Hellenism과 Judaism에 대한 오해들

1) Hellenism은 다신론적이고 Judaism은 일신론적인가? (9월 5일자 10면 참조)

2) Hellenism은 인본주의이고 Judaism은 신본주의인가?



서승원 목사

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금하셨습니다고 되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도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그의 의도와 상반된 지시를 내리신 사건은 여기 밖에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신본주의였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았음을 구약의 역사서와 선지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특히 아모스의 경우가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알고 또 두려워했다면 백성들을 착취하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였겠는가? 북방의 이스라엘 왕들은 그만 두고라도 남방의 유대 왕들 중에 과연 몇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는가? 그처럼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는데, 백성들이라고 크게 다를 것이 있었겠는가? 남방 유대가 망한 후에 그 원인에 대해 역대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36:14-6):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기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 글에서 역대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을 본받아서 기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에스겔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백성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5:5-9):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 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람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백성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 그리고 이스라엘백성이 주위의 이방인들보다 못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단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레미야2:11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이 아니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이 번역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보다 정확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 "이방인이 신들을 바꾸느냐? 이들은 신들이 아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들과 바꾸었다." 여기서 "그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뜻하고, "무익한 것"은 우상들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은 비록 헛된 신들을 섬겼으나 자기들의 신들을 바꾸지 않았던 것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배반한 것이다. 그것도 수없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애가의 저자는 자기백성의 죄가 소들의 죄악보다 크다고 한탄하였다(애4:6). 시편에 보면 자기들 조상들이 저지를 잘못과 하나님께 지은 죄를 언급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특히 78편과 106편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자책과 반성을 적은 글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경구절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면 이스라엘백성이 이방인들 특히 희랍인들보다 더 신본주의이고 야웨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힘들다고 하겠다.

3) 신약성경이 희랍어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뜻

헬레니즘을 정죄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희랍사상이 초기 기독교사상의 형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신학사적 배경과 역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신약성경이 희랍어로 쓰였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헬라사상을 쉽게 저주하지는 못할 것이다. 언어는 사상을 담은 그릇이다. 따라서 언어가 가는 곳에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사상도 함께 가는 것이다. 만일 희랍사상이 저주받을 사상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런 저주받을 사상을 담은 언어로 기록되었겠는가? 필자는 성경이 희랍어로 기록된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셨다고 믿는다.

4) 성령님께서 희랍선교를 중시하심

사도행전16:6-10을 보면 주께서 희랍선교를 얼마나 중요시하셨는가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사도바울이 아시아와 비두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때는 시기적으로 히랍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것이 헬레니즘을 대표한다고 말하기 곤란한 시기이다. 다시 말해 아레오파고스가 아테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는 헬레니즘이 꽃피기 이전이거나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즉 헬레니즘의 꽃이 시든 때이고, 헬레니즘이 전성기에 달했을 때는 그 역할이 꽤 제한되어있었기 때문에 아레오파고스를 헬레니즘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헬레니즘의 상징으로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Parthenon) 신전을 꼽는다. 이 신전은 위에 말한 황금기에 건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히랍인의 정신과 이상을 잘 나타낸 건축물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히랍문화의 위대성에 대한 가시적 증거(visual evidence)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연구되고 가장 많이 찬탄을 받은 건물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적기로 한다. (계속)

**[새벽강단]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쓰십니다**

**본문: 사사기 3:12-31**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본보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다음은 노스리지에 위치한 만남의교회 6일 새벽강단에서 최사무엘 목사가 전한 말씀.

본문은 두번째 사사인 '에봇'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에봇'은 베냐민 사람으로 15절 말씀에 '원손잡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그를 원손잡이로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봇'은 첫 사사 '웃니엘'과 세번째 사사인 '삼갈'보다 더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삼갈에 대해서는 31절 한절 밖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니다. 그에 비해서 '에봇'에 관해서는 20절이나 할당을 했습니다.

에봇은 매우 용맹스러운 자였습니다. 한규빗(50cm)이나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속에 감추고 뚱뚱한 모압왕 에글론을 살해합니다. 에봇은 용맹한 지략으로 그에게 접근해서 찔러 죽이고, 모압사람 일만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그 일만명 모두가 모압의 장사요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잔인하게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을 상세히 기록한 것일까요? 그냥 '죽였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극적인 잔인한 일을 상세히 기록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보면 에봇의 계획 하나하나,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글론 왕을 죽이고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그 당찬 계획은 단순히 뒤편으로 되라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치밀한 계획과 그 계획에 따른 실행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동작마다 세밀한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접근하기 위해 공물 바치는 것을 이용한 것, 길 갈까지 돌아와서 은밀히 왕을 만날 것을 요청하고, 왕이 곁에 선 자들을 물러가게 하고, 왕을 홀로 있게 만든 후 왕에게 접근해서 살해합니다. 이 정도까지 되려면 모압왕 에글론의 신임을 얻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계획을 누설하지 않고 치밀하게 마음속에 두고 일을 진행해 온 겁니다.

에봇이 어떤 사람입니까? 15절 말씀에는 그가 원손잡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0:15-16절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원손잡이가 700명이 있었습니다. 그 700명 모두가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들라고 했습니다. '조금도 틀림이 없이 던진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원손잡이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성경원어에는 원손잡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오른손을 써야 정상인데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라서 '원손잡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8년 동안 에글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후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 원손잡이를 쓴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오히려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 하십시오!' 말만 하면 그다음부터 고민에 빠져들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능력이나, 재력이나, 학력이나 뭐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일은 능력이나 재력이나 학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에봇이 오른손을 쓰지 못했지만 그의 지략과 용맹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 바로 거기서부터 이런 지략과 용맹함이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른손을 못 쓰는 단점 때문에 그는 오히려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 겁니다.

비록 원손잡이이지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700명이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들이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죽기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신을 키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단한 능력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사용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진 장점이 장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영원한 단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단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단점은 세상에서 쓰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얼굴 예쁘고 돈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축복된 길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학식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가장 유치한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는 평생 병원한번 안가봤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어느 건강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지 않을만한 병은 가끔씩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아플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봇처럼 모두가 약점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욱 노력하며 산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운 부서의 임명과 봉사자들이 정해집니다. 모두가 에봇처럼 각 부서마다 치밀한 계획과 성실한 자세로 충성하며 부르심에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먹으며 행복을 함께 나누었다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이다.

인류학자가 궁금해서 아이들에게 물었다. "애들아, 일등한 사람에게 모두 주려고 했는데 왜 일등을 하지 않고 손을 잡고 함께 달렸느냐?". 그러자 약속이라도 한 듯 아이들의 입에서 "우분투"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왔다. 나머지 아이들을 슬프게 하고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살아 있는 정신이 바로 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었다.

예수님도 초대교회 당시 공동체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더불어 함께할 때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글= 설동욱 목사  
목회자사모신문 발행인

**O.C./앨버틴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정애인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11:00  
한대령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여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Puente)  
TEL:562-691-0691, FAX: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장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재배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재배 8:00 분당

**남가주 잠실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예배 오전 10:45 **김민재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예배 오전 11:30 EM/영아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강제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방익수 담임목사**  
중, 고등부 오후 3시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3시 한국교회 (토) 오전 10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성숙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받은 우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분당)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10:00(미리본센터)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1:55 (미리본센터)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미리본센터: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미리본 센터)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본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한중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강림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앨버틴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수요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전 1:30

**앨버틴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김삼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앨버틴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 F. (949) 305-3951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지 사론 담임목사**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강림으로 균형잡힌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실용적, 생애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현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일 오전 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목요일 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일 선교학교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화요일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박세록 대표**  
www.samcare.org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다 보니 인류는 부족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가면 '우분투정신'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남아프리카 부족들이 사용하는 인사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라는 뜻이다.

남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어느 인류학자가 나무 옆에 심심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한 바구니를 놓고, 누구든지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과일을 모두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이 통역되어 남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러자 그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함께 바구니에 도착하여 딸기를 서로 나누어

먹으며 행복을 함께 나누었다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이다.

인류학자가 궁금해서 아이들에게 물었다. "애들아, 일등한 사람에게 모두 주려고 했는데 왜 일등을 하지 않고 손을 잡고 함께 달렸느냐?". 그러자 약속이라도 한 듯 아이들의 입에서 "우분투"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왔다. 나머지 아이들을 슬프게 하고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살아 있는 정신이 바로 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었다.

예수님도 초대교회 당시 공동체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더불어 함께할 때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글= 설동욱 목사  
목회자사모신문 발행인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 확장 이전 기념 세일!

100불 이상 구입시마다  
미네랄 회색 바다 소금  
1파운드 (16온스-40불상당)

무료

확장기념으로 특별한 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연산이나 소금을 100불 이상 구입시 마다  
**Sea of Cortez 무공해 천연 미네랄 회색 바다소금**을  
**1파운드(16온스 - 시판가 40불)**를 증정하며,  
200불 이상 구매 고객분들께는 **산삼 한 뿌리도 증정합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프로모션 A \$280 **\$100** No Tax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프로모션 B \$270 **\$100** No Tax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프로모션 C \$280 **\$100** No Tax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쓰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할.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다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잠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올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컸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로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망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니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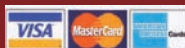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응연연구소 수료 응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월-금: 10am-7pm, 토:10am-5pm



# Life



[이스라엘 탐방] 광야 수도사들의 음식(3)

## 야생 식물

매우 열악한 환경인 유대 광야에서 수도사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야생 식물을 먹었기 때문이다. 수도사들이 광야에서 섭취했던 식물들은 야생 허브인 엉겅퀴(manouthishion), 소금 나물(saltbush), 케이퍼(caper), 그리고 멜라그리아(melagria), 케인(canes)이 있다. 이런 식물들은 유대 광야의 은둔자들이 일반적으로 야생에서 취했던 식물들이다.

광야의 야생 풀 가운데 식용 식물을 구분하는 안목은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되었다. 때로는 식용과 독초를 구분하는 방법을 수도원 인근의 주민들로부터 배우기도 했다.

1990년대 말,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이스라엘의 한국 유학생들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 때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필자의 가정도 광야 인접한 곳에서 야생 식물을 뜯어다 반찬으로 사용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들판에서 구했던 야생 식물은 아욱, 갓, 쑥갓이 있었다. 지금도 베두인들은 이런 식물들을 음식으로 섭취한다. 특히 갓은 갓 감치, 말린 후에 된장국 사래기, 소금에 절여 장아찌로도 훌륭한 반찬이 되었다.

광야에서 수도사들이 쉽게 구했던 식물은 엉겅퀴(manouthishion)이다. 수도사들은 단채로 엉겅퀴를 찾아 나서, 많이 모아왔다. 사바스의 기록을 참고하면, 그가 아직 데옥티스투스 수도원의 생도로 지낼 때, 다른 수도사생도들은 한 부대의 엉겅퀴를 모았지만, 그는 매일 세 부대의 엉겅퀴를 구해왔다.

안토니 코지바에 따르면, 마누티온(manouthishion)이란 엉겅퀴는 특별한 기간에만 구할 수 있었는데, 이를 구할 때는 굴에서 수도 생활하던 모든 수도사들과 수도원 방문객까지 총 동원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마누티온(manouthishion)이란 엉겅퀴는 짧은 기간에만 구할 수 있었던 식물인 듯하다.

마누티온(manouthishion)은 사방에 널려 있다고 안토니는 적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 수도사가 코지바 수도원으로 마누티온을 운반하던 중에 강한 바람에 밀려 마누티온이 산 한쪽으로 날아갔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 특별히 힘든 일을 하는 수도사에 대해 적었다. 그는 철야기도(nocturnal office) 후에 마누티온을

구하러 나가서는 새벽녘에 엉겅퀴를 짚어지고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피를 흘리기까지 마누티온을 거두었다는 안토니의 기록으로 보아, 아마도 마누티온은 가시 엉겅퀴가 맞다. 수도사들은 가시 엉겅퀴를 거두어 수도원의 창고에 저장했다. 코지바 수도원은 가시 엉겅퀴를 화덕 근처에 보관했다.

수도사들이 광야에서 구했던 가시 엉겅퀴(tumble thistle)는 팔레스틴 전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엉겅퀴가 처음 싹이 나는 2월, 3월에는 줄기, 잎, 꽃, 씨를 모두 구할 수 있다. 여름에는 잎이 노랗게 변하고, 가시는 매우 억세진다. 마누티온(manouthishion), 곧 가시 엉겅퀴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은 아주 짧다. 짧은 기간 식물로 사용된 엉겅퀴는 나중에는 말라 펄갠으로 사용되었다.

시릴은 유태미우스 수도원에서 동료들과 함께 소금 나물(malwa bushes)을 다듬었다고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말바(Malwa)는 히브리어의 말루아(maluah), 곧 소금(x:WLM:)을 가리킨다. 이 식물은 읍기서에 한 차례 기록되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x:WLM:)도 꺾으며 대싸리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욘 30:4).

유태미우스와 도미티안이 마사다에서 지낼 때 그들은 그곳에서 짠 나물(saltbush)을 구했다고 기록하였다. 광야는 물론이고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구할 수 있는 이 식물은, 날 것으로나 요리해서나 먹을 수 있다.

코지바 수도사들은 케이퍼 씨앗(caper seed)을 모으곤 했다. 안토니의 멘토인 조지는 “수도원 근처에 케이퍼 나물(caper bushes)은 무성하게 자라니, 하루에도 한 바구니 가득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퍼(Caper)는 팔레스틴의 거친 바위, 절벽에도 잘 자라는 식물이다. 케이퍼는 꽃과 풋열매를 먹을 수 있다. 유대 광야 골짜기 낮은 곳에서 케이퍼 나물(caper bushes)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고행하는 수도사들은 때로 이상한 것을 먹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간혹 수도원에 품질이 좋은 음식물이 기부되기도 했다. 안토니 코지바와 관계된 이야기이다. 조지는 창고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안토니를 위해 식물을 모두 치우고 그 위에 야채, 콩(vegetables, pulses, or kernels)을 올려두라고 요청했다. 그

후에 안토니는 이것들을 절구에 넣고 갈아서 공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2-3일간 햇볕에 말렸다. 그리고 음식이 필요할 때 안토니는 굴에서 이것을 먹었고, 또 물에 불려서 먹기도 했다. 오랫동안 대 라우라에서 지냈던 존 헤시카스트(John Hesychast)는 죽에 재를 섞은 것이 그의 유일한 음식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릴은 약대 상인들이 운반해 온 30 꾸러미에 대해 기록했다. 꾸러미는 예루살렘의 세리조함에서 대 라우라로 보낸 예물로, 포도주, 빵, 밀, 기름, 꿀, 치즈였다. 이것은 예외적으로 유대 광야 수도사들에게는 기적에 가까운 음식들이다. 그러나 물품들이 자세히 기록된 것으로 보아 수도원에는 때로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과 주일, 요단 계곡의 제라시무스 수도원에는 지역 사람들에게 의해 음식이 예물로 드려졌다. 4세기 예리고 지역에 수도원이 세워지기 전, 인근 동굴에는 겨우 은둔자

들만 있었다. 당시 예리고 주민들은 그들을 위하여 종려나무 열매와 야채를 드렸다. 사바스가 광야에서 은둔자로 지낼 때, 인근의 몇 사라센인들은 그를 방문하여 빵, 치즈, 종려나무 열매를 가져왔다. 그리고 유대 광야의 존 헤시카스트를 방문했던 한 노인은 신선한 빵, 포도주, 올리브 기름, 치즈, 계란, 그리고 꿀을 가져왔다. 계란, 생선, 그리고 고기는 병든 수도사들에게 예외적으로 제공되었다.

가족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치즈, 꿀, 계란은 수도원에서 음식으로 이용되지 않았다. 또 이런 음식들을 외부로부터 구매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때로 이런 음식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예물로 드려질 때가 있다.

그럴 경우 수도원에는 만찬이 마련되었고, 예물 음식들은 곧 소비되었다. 수도원에서 이런 음식들을 기피했던 것은 보관의 어려움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도원의 음식 규정에서 치즈, 꿀, 계란은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있으면 먹었지만, 없다면 해서 찾지는 않았다. 경건한 수도사들은 작은 것에도 만족했고, 또 자족할 줄 알았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1~12)

이주십 목사  
현)두루Tentmaker(www.eduru.co.kr/두루투어/두루에듀/두루문화원) 교문현)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Georgia Christain University) 역사 지리학과 교수  
현)성서지리연구원 (Institute of the Biblical Geography) 원장  
전)예루살렘 대학 역사학과에서 고대성읍, 히브리 대학 고고학과에서 고대도로를 수학  
전)4X4 지프를 이용하여 방문 가능한 모든 성경적인 유적들을 탐방



맨 왼쪽의 노란 꽃은 겨자, 그 옆의 역선 식물은 가시 엉겅퀴이다.



마르 사바 수도원 광야에 있는 야생 식물로 빨간 꽃은 들의 백합이며, 그 아래 연한 초록색 식물은 소금 나물이다.



마르 사바 수도원의 전경과 수도원 앞 광야



# WIN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 “YEAR END CLEARANCE SALE”

**\$1000불만 내시고**

**\$159**



**2013 New Sonata GLS**  
MSRP \$22150 Residual \$13290 12K miles per year  
On 3years closed end lease Drive-Off \$1000+lic&doc, on O.A.C.

**\$479**



**2013 New Equus Signature**  
MSRP \$60150 Residual \$35488 12K miles per year  
On 3years closed end lease Drive-Off \$4999+lic&doc, on O.A.C.

다른데 다알아보시고  
마지막으로  
전혀주세요

**\$289**



**2013 Genesis 3.8**  
MSRP \$35,380 Residual \$20166 12K miles per year  
On 3years closed end lease Drive-Off \$2999+lic&doc, on O.A.C.

**\$239**



**2013 Santa Fe GLS**  
MSRP \$25665 Residual \$15665 12K miles per year  
On 3years closed end lease Drive-Off \$1999+lic&doc, on O.A.C.

거부할수 없는  
가격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Stone Kang**  
**888.721.9812**  
3462 N Peck Rd. El Monte, CA 91731

중고차 Trade-In환영, 중고차 고가매입, 노크레딧 용자환영

\*No purchase necessary. Must be 18 or over with valid driver's license. Offer available to customers who must 1. Test drive a vehicle 2. Complete Credit application 3. Complete write-up on a new vehicle purchase 4. Were not able to an agreement on a new car purchase. 5. Must bring printed email at time of write up. Not valid for those whose credit does not qualify for loan. Limit one per household. Offer applies to new vehicles only.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Not all customers qualify, see dealer for details.



# LA 통합교육군 이대로 괜찮은가?

미국내 공교육 문제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동성에 교육 의무화를 비롯한 반기독교 교육이 탄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보장되지 않는 기대보다 이제 교회와 적극 나서 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차세대 新개념 대안학교를 설립해 운영 중인 교육전문가들의 글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TV에 방송되고 있는 LA통합교육군 교육위원회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들의 토론은 항상 몇개 안되는 안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추가 부지를 확보하여 더 많은 학교를 건축해야한다. ▷재정난은 끊임없는 현실이며, 계속 추가보조가 필요하다. ▷교사에게 더 많은 봉급과 혜택을 제공해야한다.

학교를 더 건축하고 교사를 더 확보하고,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은 논리적이고 합당한 것 같아 보이나 그 뒤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럼 통합교육군이 추구하는 방침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통합교육군을 그대로 꾸러가는 것이다.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고, 마치 물속으로 가라앉는 군함을 계속 단계적으로 "뺨질"만 하는 것이다. 만

약 통합군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기로 교육위원들과 교사노조가 결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더 좋은 봉급과 혜택 패키지가 우수한 선생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방침이다. 교직은 돈 때문에 택하는 직업이 되어서 안 된다. 그런데 현재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소명이나 천직에 상관없이 금전적인 혜택을 보고 교편을 잡고 있다. 물론 이들 가운데 좋은 교사들도 많다. 하지만 돈과 혜택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른 직업을 찾는 가운데 잠시 교편을 잡는 사람도 많다. 봉급과 혜택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생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전문기관을 만들고 후원하는데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 근본적인 인력난을 해결해야지 봉급 및 혜택인상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부지와 시설, 그리고 좋은 교재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학생 대(對) 교사 비율이 낮은 학급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을 학교시설 증가로만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앞서 언급한 것 같이 헌신된 교사들 더 많이 배출하고 고용하는 것이 우선이며, 또한 버스(Busing), 과잉행정비, 그리고 지출을 대폭 줄이지 않고는 절대 소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New Covenant)  
크리스천사립학교

규모 학급을 만들어 갈 수 없다. 버스 프로그램을 절약한 예산을 교사훈련 및 학생교육에 투자한다면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재정난은 해결할 수 있다. 추가 재정을 요구하기 전, 포괄적으로 교육구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만들어야만 이미 갖고 있는 엄청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통합교육군의 1년 예산은 70억 달러(\$7 billion)이며, 캘리포니아 주 총 교육예산의 10%를 차지한다. 만약 LA통합교육군이 기업이라면 인센티브 및 냉정한 평가제도를 사용해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한 후 출혈을 막고 시스템을 개편했을 것이다.

공립학교만이 해결책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매년 한 학생을 교육시키기 위해 지원되는 공교육비는 9천 달러 정도다. 이 금액의 일부를 바우처(voucher) 프로그램에 투자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몇년간 오하이오, 콜로라도, 그리고 플로리다 등 여러 주(州)에서 시도해온 바우처 프로그램은 공교육비를 사립학교에 투입해 저소득층 학생을 사립학교에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바우처 프로그램은 이미 실험 차원을 지나 현장 검증 을 받았다. 사립학교는 기업같이 성과에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똑같은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더 이상 세납자를 희롱하고 속이면 안된다. 최근 아이패드(iPad)를 통한 교육을 시도한다고 발표하고 아이패드 구입비만 10억 달러(\$1 billion, LAUSD 연간예산의 약 15%에 해당함)를 지출했는데, 뒤늦게 키보드가 필요하다면서 추가로 3천8백만불(\$38 million)을 요구했다.

자, 그렇다면 1,124개의 캠퍼스의 인터넷 설치비는 얼마나 더 필요할까? 그리고 각 아이패드에 설치해야 할 앱(app)과 아이패드 충전 스테이션 비용은? 아이패드를 보호하는 커버는? 아이패드가 고장날 경우 수리 비용은 책정됐을까? 아이패드에 사용에 대해 잘 모르는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재정은? 이런 식으로 재정이 더 필요하면 채권(bond)을 또 발행하고 돈을 빌리고 세납자가 추후 지불하게 할 것 아닌가?

옛말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있다. 꼭 LA통합교육군에 걸맞는 표현인 듯 싶다.

학교 시설과 부지 확보에만 신경쓰지 말고 학교는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교육이란 무엇인지 다시 정의를 내려야 한다. 기존 프로그램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뀌기며 수정해 나가겠다는 임금 인상(incremental) 문제 접근 방안들과 "학교란 이런 것이다"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고 21세기 정보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학교의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한다.

LAUSD 같은 거대한 교육구가 단번에 대폭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간 파산위기, 주민거부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

수년전 엘-몬티 교육구가 파산을 신청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LAUSD도 획기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교육위원들과 교사노조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만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미 타주에서 성공하고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같은 파격적인 방안을 도입하여 공교육기관을 대(大)수술해야 한다.

빠른시일안에 이 수술을 받고 건강 한 LAUSD가 되길 바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정신 차리고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신경을 써야겠다.

"남에 집 불 구경"만 하지 말고, 주인의식을 갖고 잘못된 LAUSD를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건의 및 투표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참여하는 크리스천의 자세라 믿는다.

## 물질 문제는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미국은 자본주의 체제, 즉 자유시장 경제체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1907년 러시아가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치열하게 체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소련과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1990년을 전후하여 사실상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을 맺었는데, 현대 사회학의 창시자 막스 베버의 말대로 자본주의는 기독교에서 출발하였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명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잘 살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개신교인들이 카톨릭교인들보다 더 잘 사는 데, 그 이유는 개신교 교인들은 성경과 기독교 윤리에 따라 근면하고 절제하며 성실하게 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2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

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약속 하셔도 사람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여 악한 꾀를 사용하면 자본주의의 약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은 사유재산 존중입니다. 그러다보니 치열한 경쟁 속에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여기고, 올바르게 살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돈만 생기기 쉽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생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



**진 유철 목사**  
남성순복음교회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돈, 재물이라는 것을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6:24) 재물과 돈의 문제는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건강한 삶과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하

고 경배할 분은 오직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어떻게 소득하고 사용했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결산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세상이 사용하는 악한 방법으로 소득을 올려서도 안 되고, 죄악 된 일을 위해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인을 위한 몫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수록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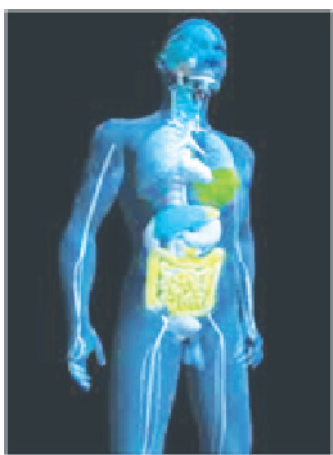
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급속한 지식정보사회에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처 입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선행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성경적 믿음의 태도로, 돈과 재물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승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 기독일보

편집교문 : 박해민, 정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탕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팩스 : (213) 402-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도입!



**다나병원**의 3D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 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상태뿐 아니라 위험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검사 결과는 검사즉시 코드화한 3D 입체 칼라 영상을 통해 이상이 있는 부위와 문제를 수치와 영상으로 보여주며, 이에따른 **최적의 건강관리와 최상의 비화학적 치료**를 안내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료 후의 효과도 재검사를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10분 미만의 초스피드 검사
- ✓ 즉석에서 결과 확인과 상담
- ✓ 최상의 치료관리법 안내
- ✓ 초 저렴 검사 및 상담비

### 유전자 생약치료 프로그램 (gene nutrition herbal therapy)

노화, 콜레스테롤, 혈관, 항산화,비만, 당뇨병, 고혈압, 치매, 중풍, 관절염, 파킨슨, 유방암 전립선암, 직장암, 식도암, 난소암등에 관련된 유전자외에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상담을 하고, **BAM(bio active molecule;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특별무술수기법에 의한 완고한 통증(요통,오십견, 무릎관절통, 좌골신경통등)의 치료도 하고있습니다.**

**다나병원** 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태바 선교후원회 부설, 다나 병원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다나병원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이상명 목사의 성서로 문화 읽기



이상명 목사  
미주장신대 총장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1889-1975)는 오래 전에 “20세기는 동양 종교들과 기독교를 혼합한 제3의 천년기의 거대한 보편 종교가 처음 등장한 세기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앞날을 미리 내다본 탁월한 식견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교회야말로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이다. 세계적인 비교문화학자인 조셉 캠벨도 불교가 미래의 종교가 될 것임을 내다본 바가 있다.

이들의 말처럼, 현대 기독교는 불교를 포함한 동양 종교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기독교 신학자로 알고 있는 슈바이처, 인도 선교사의 아들로서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헤르만 헤세, 동양 종교의 영성으로 가득 찬 가톨릭 신부였던 토마스 머튼 등 모두가 복음에 동양의 종교적 사상을 접목하거나 혼합한 20세기의 유명한 사상가들이었다. 이러한 현 추세는 혼합주의적 성향에 편승하여 유사 복음을 외치는 이들은 사상가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있다.

유사복음을 환호하는 세대

2007년 12월 23일 ‘폭스뉴스선데이(Fox News Sunday)’에 출연해서 “물론교가 진정한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념을 드러낸 목회자가 있었다. “나는 자질구레한 것 따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물론교도 진정한 기독교라고 생각한다.” 그뿐 아니라, “타종교인이 예수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조심해야 돼요. 글썄요, 잘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CCN의 토크쇼인 ‘레리 킹 라이브’에서). 30,000명의 교인을 거느린 메가처치의 목회자이자 변영의 신학으로 유명한 조엘 오스틴의 주장이다. 긍정의 힘으로 포장된 그의 복음은 이전에 낙론적 삶의 태도와 성공을 복음이라고 외친 로버트 솔러와 긍정적인 사고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안 빈센트 필의 유사복음과도 공명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사복음은 성경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 간 사랑, 화해, 평화, 공존해야 한다고 크게 외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선포, 인간의 죄성과 회개의 요청,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뺀 유사복음으로 물든 기독교는 과연 기독교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은 인류가 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은 자신이 신이고 부처라고 선포하고 믿는 주술적인 일만 남았다.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하고 인간을 작은 신으로 인식케 한 계몽주의 사조 이후, 인류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끔찍한 제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재앙을 맞이하였다. 각 종교 안에 있는 영성의 색깔과 내용은 분명 다른 것이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영성과 인간을 향해 나가신이고 부처라고 하는 동양 종교의 영성과는 차이가 다른데, 이것을 억지로 조합내지 혼합하려 한다면 기독교의 정체성과 영성을 해체시키려는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이다. 타종교와의 연합내지는 혼합이라는 명목으로 혹은 대중적 기호에 맞추어 기독교적 정체성을 내려놓는 현상이 기독교계 바깥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종교다원화된 미국의 현실

현대의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다문화 사회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종교에도 적용된다. ‘종교다원’은 이 시대의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1960년대 미국과 유럽에 동양 종교와 사상이 유입되면서 기독교가 주도하는 시대는 서서히 물러가고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라는 말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밖에 모르던 서구문화에 다양한 종교 전통을 지닌 아시아 인구가 유입되면서 종교 다원 사회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 인구의 유입보다 종교 다원 현상을 더욱 가속시킨 것은, 전방위로 뻗어 나가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여러 다양한 종교 전통의 전세계적 공유에 있다. 그러나 종교 다원 현상을 하나의 피할 수 없는 대체로 여겨, 여러 다른 종교로부터 기독교 복음이 간직하고 있는 독특성, 유일성, 계시성을 버리는 것은 기독교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反)복음적 행위다. 이러한 급진적 이념 운동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 한다. 종교다원주의란, 종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절대 종교란 있을 수 없고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사상이고 이념이다.

종교 다원 시대 속에서 기독교 내부에서조차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맞닥뜨린 주요한 현상은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문제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규정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이러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과제다.

유사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시도한 ‘제1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는 신앙의 본질 회복에 관한 것이었다. 20세기 초, 에큐메니칼(ecumenical), 즉 교회일치 운동가에 의하여 시도된 소위 ‘제2의 종교개혁’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라’는 교회의 본질 회복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제3의 종교개혁은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회복’과 관련된 것이다. 종교개혁을 촉발했던 95개 논제를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Wittenberg) 성 교회의 문에 내건 이후 500여 년이 흘렀다. 지난 500여 년 동안 기독교는 서구 문화

와 궤적을 같이하면서 그것의 큰 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1세기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기독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거센 도전 앞에서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 힘없이 무너질지는 21세기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부단한 개혁’이라 한다면, 내리막길에 있을 때도 복음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개혁해 나간다면, 우리는 오르막길로 겸손히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도 부침(浮沈), 성하고 쇠할 때가 있듯이 기독교 역사에도 부침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복음 전파의 사명은 기독교의 본질에 속한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복음전파를 포기하고자 주장하는 일부 자유적인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입장은 성서적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 4:1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

타종교와의 대화의 수준을 넘어 혼합 내지는 기독교적 알함을 버리는 행위는 바울이 저주한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여 함이라”(갈 1:7). 1세기 갈라디야교회를 향한 바울의 외침이 기독교적 정체성을 잃은 이도저도 아닌 잡탕 영성에 물들지 않도록 21세기 현대 교회를 흔들어 일깨우는 각성제가 되길 바랄 뿐이다.

가고 싶은 교회

이민을 새로 왔거나 이땅에 오래 살고 있어도 포근하고 아늑한 내가 자란 고향산천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향의 향기가 묻어나는 교포 교회에 찾아가 심신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영의 에너지를 받고 싶은 바람이 있다.

안 선생이라 불리는 한 지인은 미국에 온 뒤 친구에게 이끌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으나 뭐가 뭔지 모르고 다니다 이번에 직장을 따라 이사하면서 친척이 나가는 교회에 등록했다. 미리 그분들이 잡은 터전에 끼어 들어가니 너무도 편안하다. 목사님의 도덕적인 설교는 유머러스해서 좋고 예배 후 김치를 곁들인 점심이 한국인의 입맛을 지켜주고 교회에서 만난 분들과 골프를 치고 서로 저녁식사 초대해 하다 보니 미국 안에서도 작은 한국사회를 형성해 외롭지 않다.

그는 남에게 짐이 되는 것을 싫어하지만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짐이 되는 일을 맡지도 않는 사람인 탓에 집사 직분도 사양하고 교회 출석이나 헌금도 기본 나는대로 하는, 그의 말대로 ‘날라리’ 교인이다.

안수집사 변 씨는 흔히 하는 말로 열심파다. 담임목사가 많은 기도 중에 성경 안에서 오묘한 진리를 끌어내 현실과 접목시키며 군더더기 없이 뜨겁게 30분 내에 끝내는 설교에 반했다. 성가대의 가슴으로 부르는 찬양은 들을 때마다 천사의 노래로 들리고 더욱 교인들이 한결같이 환하게 웃는 얼굴에 자신도 전염돼 늘 웃는 사람으로 변해간다. 안내집사나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자신에게 어서 앉으라고 웃는 눈인사, 예배를 마친 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고 손을 잡아주는 옆사람에게서 사랑을 느꼈다. 그 교회

는 새벽기도를 위해서 성경공부, 독서 모임 외에 청·장·노년 등 모든 부서가 매일 모임이 있고 한글학교도 열성적으로 활동해 살아있는 교회로 생각되어 자신도 몇달후에 다른 분들과 같이 등록을 했다.

정 권사는 큰 교회는 이미 안정돼 있고 많은 일꾼들이 있으니 작은 교회에 들어가 봉사하기로 하고 몇 곳을 돌아보다 처음의 생각을 바꾸었다. 넓은 공간에서 몇 명의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쉼렁하고 산만해서 마음을 모을 수가 없고 더욱 설교내용은 교인들의 헌신과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공통점이었다.

기실 신앙을 잘 키워 스스로 헌신과 헌금을 하는 교인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 순서가 바뀐 것을 보고 실망하고는 중간 규모의 교회로 가기로 생각하고 서로 정을 주고 받는 따뜻한 교

회를 찾았다. 몇달후 찾은 곳은 한 주일이라도 빠지면 목사님이 문안 전화를 하고 구역장이나 새 신자부에서 연달아 연락이 오고 심방을 와 주시고 음식까지 해다 주시니 외로운 정권사는 너무도 그 교회가 마음에 들어 적을 올렸다.

홍 장로는 겸손히 남을 섬기는 교회를 찾았다. 많은 교회가 일술로만 봉사하지 실제 도움을 주는 일에는 인색한 것을 체험한 이 분은 흔히 하는 말대로 “‘늙은 암탉’이 많은 교회”는 피했다. 즉 자기가 낳아야 할 알은 못 낳고 먹기는 많이 하되 알 잘 낳는 젊은 닭들을 쫓아내는 ‘제왕’ 같은 장르가 있는 곳은 갈 곳이 못되고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자매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를 찾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 교인은 어느 부서든지 한 부 이상 들어가 봉사해야 한다. 홍 장

로는 등록하는 날부터 성가대로 들어갔고 아내되는 김 권사는 부역으로 직행했다. 목사님도 쓰레기통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본다. “섬기는 법을 교회에서 배워라”는 이 교회의 표어가 너무도 마음에 들었다. 이곳에서 훈련받으면서 사회에서도 남을 섬기라는 목적의식에 홍 장로는 붙잡혔다.

교회를 찾아오는 교인들의 요구는 다양하다. 그 요구들을 얼마나 잘 채워줄 수 있느냐가 교회의 부흥과 직결된다. 그 중심에는 담임목사가 서 있다. 같은 곡을 가지고도 지휘자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듯 같은 성경을 가지고 목회를 해도 목회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누구나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기쁨이 차고 넘치며 서로 섬기는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는 교인이 되기를 기원한다. 현순호 목사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 경산 한의과 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 북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추천

**떨떨매시는 하나님**  
차정식 | 포이에마 | 332쪽

‘길 위의 신학자’ 차정식 교수의 세번째 신학 수상집. 일상에서 건져 올린 60편의 신학적 묵상을 담았다. 보다 자유로운 신학적 사유를, 엄숙주의와 조바심에 둘러싸인 신앙의 피막에 균열내기를 꿈꾼다. 저자의 표현을 빌면, 글은 마치 참석자들에게서 생활인의 밤새와 피로가 풍기는 ‘수요 예배의 풍경’이다.



**신을 찾아서**  
에드거 케이지 | 사과나무 | 255쪽

20세기 최고의 예언가 에드거 케이지(1877-1945)의 세계적 베스트셀러. 자신이 최대 업적이라 스스로 내세운 역적이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에 케이지가 제공한 정보는 인류의 영적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할 만한 것으로, 그의 사상은 많은 이들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세계관을 변화시켰다.



**하나님의 통로**  
오스 힐먼 | 터치북스 | 288쪽

우리가 단지 생계 수단이라 여겼던 그곳에, 보다 큰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직업을 통해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 그곳이 선교지인지, 동네 철물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최근 히브리서 연구 동향**  
다니엘 J. 해링턴 | CLC | 128쪽

‘21세기 신학 시리즈’ 13번째 책으로, 30년간 발전해온 히브리서 연구의 동향을 간략하지만 명료하게 알려주면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자료들을 소개한다. 저자는 히브리서가 ‘글로 기록된 설교’라는 점이 학계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며 히브리서 메시지를 믿음의 삶에 적용시킬 것을 강조한다.



## REVIEW

### ‘18C 칼빈주의 에큐메니스트’ 휘트필드와 WCC의 차이

#### ‘칼빈주의 에큐메니스트’ 로 불린 조지 휘트필드의 외침

에큐메니칼 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칼빈주의 에큐메니스트(ecumenist)’라 불리는 18세기 성직자 조지 휘트필드(George Whitefield·1714-1770)를 통해 돌아보는 도서 <조지 휘트필드와 에큐메니칼 운동(CLC)>이 발간됐다.

조지 휘트필드는 영국 국교회 목회자였음에도, 영국 국교회의 제도적 일치와 연합을 다른 기독교 공동체에 요구하는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 생명력을 중요시했다. 휘트필드는 칼빈 신학에 충실했지만, 구원과 관련 없는 비본질적 교리에 있어서는 상호 비방이나 투쟁

을 가급적 삼갔다. 그 결과 휘트필드의 에큐메니즘은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운동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특히 미국의 문화적 다양성이 하나로 통합되는 연합과 일치 운동을 불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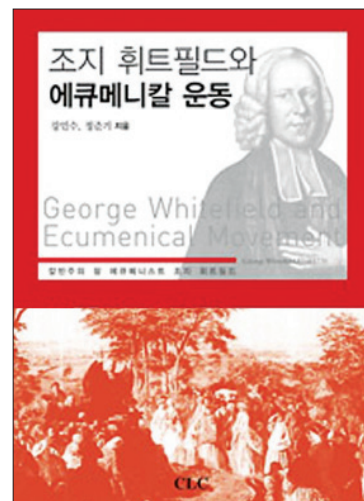
조지 휘트필드는 특히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일깨움으로써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고 인간 상호간의 연합과 협동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에큐메니즘’에 힘썼다.

갈리외 창시자 존 웨슬리와 함께 ‘홀리 클럽’ 멤버로, 빈자·노인들을 돌보며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

는 등 사회활동에 힘썼고, 교육사업과 더불어 고아들에게 지극한 정성을 쏟았다.

저자인 정준기 교수(광신대)와 강민수 목사(광주변성교회)는 특히 현대 복음주의 성도들에게 근심과 우려를 제공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휘트필드의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휘트필드는 기독교 내 여러 교단이나 교파, 소수의 독립형 분파와 지역·국가까지 초월해 포괄적·포용적으로 바라보았으면서도, 영국 국교회 사제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 사실 성경적 에큐메니즘은 예



정준기·강민수 | CLC | 336쪽

수의 명령이기에,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등 이상한 운동이 아닐 뿐 아니라 더욱 발전시켜야 할 덕목이다.

휘트필드는 웨슬리의 알미니안 신학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그를 감리회 총수가 되도록 직·간접적으로 도울 정도로 포용적이었다. 하지만 삼위일체 교리, 특히 기독교를 배제하려는 자와는 상충적 않았고, 종교 다원주의나 종교혼합주의에 단호히 반대했다.

휘트필드는 칼빈주의자이면서도 장로교회만을 위한 설교사역 부탁은 정중히 거절했다. 하지만 저자

###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 세종 송보감

“충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http://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4층)

## 세리토스현대 CERRITOS HYUNDAI

EQUUS SIGNATURE 2013	SONATA GLS 2013	ELANTRA GLS 2013	ACCENT GLS M/T 2013
<p><b>\$499 Lease</b> per month plus tax</p>	<p><b>\$109 Lease</b> per month plus tax</p>	<p><b>\$99 Lease</b> per month plus tax</p>	<p><b>\$89 Lease</b> per month plus tax</p>

한인담당  
**Alex Shin**  
CERRITOSHYUNDAI.COM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9월 22일 까지입니다.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18818 Studebaker Rd  
Cerritos, CA 90703

Tel. 562.900.2399



# 신간 패턴: 생각 의지 운명을 뛰어넘는 인생의 공식

## 탁월한 직관과 혜안의 비밀 '패턴'에 있다



패턴 PATTERN  
커비 서프라이즈/박지훈 | 쌤앤파커스 | 320쪽

우연의 일치, 뜻밖의 행운, 운명의 장난...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패턴이 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힘에 인간의 생각, 의지, 행동, 운명이 좌우된다면? 패턴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가?

살다 보면 우연의 일치나 뜻밖의 행운, 운명의 장난 같은 사건을 종종 경험한다. 때로는 어떤 자석 같은 힘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돌발적인 행동하고, 이유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무언가를 선택한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들이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주거나, 답답한 현실을 돌파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것을 단순히 '운명'이나 '타고난 팔자'로 봐야 할까? 혹시 인생을 지

배하는, 보이지 않는 공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이 모든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바로 '패턴(쌤앤파커스)'이다. 이 책의 저자 커비 서프라이즈 박사는 심리학 박사이자 임상 심리학자로서 캘리포니아에서 심리분석가로 일하고 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성이나 감정, 논리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정신세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게 과연 사실일까?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과연 진짜 우연일까? 혹시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일은 아닐까? 인간의 의식 저편에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

끼는 것이 과연 실재인가? '끌어당김의 법칙'이 존재한다면 그 원리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화두로 커비 박사는 용의 '공시성(synchronicity)' 이론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누구나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매우 빈번하게 공시사건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공시사건의 패턴을 알아낼 수 있으며, 심지어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

커비 박사는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만을 탐닉하는 현대인에게 일침을 가한다. 그는 이 책에서 다양한 신경과학과 뇌과학의 최신 정보들을 종합해 현대인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데, 그중에서 세 가지를 꼽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보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 역시 우리의 감정과 사고가 만들어낸 것이다. 둘째, 의미를 부여하면 감정이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 에너지는 인생의 여러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랑과 감사, 존경 같은 좋은 감정은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 삶에 좋은 것들을 가져다준다. 셋째, 감정을 부여하지 않으면 감각은 뇌에 잘 기억되지 않는다. 그래서 감

정이라는 에너지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직관이 발달한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과 현상을 이성, 논리, 과학, 감정의 틀에서 벗어나 '패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또한 패턴을 읽고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기회와 가능성을 발굴할 수 있다. 김은애 기자

## '가수 자두의 배우자' 는 시애틀 출신 지미 리 목사

### 지인들 "하나님을 힘있게 전하는 사역자"

가수 자두(31)가 올 겨울 웨딩마치를 올린다고 밝힌 가운데, 그 배우자가 시애틀 출신 지미 리 목사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미 리 목사는 자두가 출석하는 경기도 일산 소재 교회 영어부 목회자로, 두 사람은 지미 리 목사가 2011년 이 교회로 부임하면서 처음 알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해 5월부터 정식 교제를 시작했으며, 최근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

자두는 예비 배우자에 대해 "좋은

인품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포용할 줄 아는 넓은 그릇에 내가 담겨 버린 것 같다"며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자두는 또 "목회자적 열정 뿐 아니라, 음악, 사진, 디자인, 스포츠 등 재능이 많고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지미 리 목사는 한국계 미국인 목사로 12년 동안 처치 온 더 락, 주빌리 에반제리컬 처치, 하비스트 락 처치, 데스티니 시티 처치 등 워싱턴 주

각 지역에서 활발한 사역을 감당해 왔다.

또한 22세 때는 청소년 사역자로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 부근에서 목회하기도 했으며, 미국 내 시애틀, 내슈빌, 렉싱턴 등지에서 다양한 컨퍼런스 강사로 활동하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청년 목회자로 알려지기도 했다.

지인들은 "지미 리 목사는 2007년 이후 미국과 대만, 인도 등지에서 순례 선교사로 사역하며 헌신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며 "성경적 토대 위에 하나님을 힘있게 전하는 사역자"라고 설명했다.

자두는 결혼식을 올린 후 잠시 중단했던 음악활동도 다시 시작할 예정이며, 신혼집은 미국 시애틀과 한국에 각각 마련할 계획이다.

자두는 2001년 가수로 데뷔해 '대화가 필요해', '김밥' 등의 히트곡을 남긴 바 있으며, 그동안 여러 CCM 찬양으로 많은 감동을 전해왔다. 김브라이언 기자




들은 다음달 부산에서 제10차 총회를 개최하는 대표적 에큐메니칼 운동 기관인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성경관과 기독교 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들은 "교회 일치와 연합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지만, WCC가 지향하는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은 초

대교회 에큐메니칼 공의회나 휘트필드의 에큐메니즘과 그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성경적이라 보기 힘들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휘트필드의 에큐메니즘은 WCC와 비교해 정체성(Identity)과 정직성(Integrity)이라는 두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정리한다.

그러나 휘트필드가 회심 경험을 강조하다 초기 사역에서 회심 경험이 없는 자들을 혹독하게 질책하고 탄핵한 점이나, 존 웨슬리만큼 노예제도에 대한 개혁적 생각을 품지 못한 점 등에 약점이 있었다는 평가도 잊지 않았다.

이대웅 기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u.edu www.wciuproperties.com/




**Gold Finger**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전화주시면 출장 주문, 가봉 완성 후 배달

Business hour 8:00am to 7:00pm  
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

**골드핑거**  
남녀맞춤, 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 법무부 직업훈련원 감독위원 역임
-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 이사
- 한국아트패션 회장
- 90년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 94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대림 라사운영 1979-2000

맞춤 양복 이어서 좋습니다.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975 S.Vermont Ave.#102, Los Angeles, CA 90006 T.213.386.5858 / C.213.663.9556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 페인팅 (PAINTING)

## 마루 (HARD FLOOR)

## 정직 (HONESTY)!

HAND MEN AVAILABLE

**U.S. ENTERPRISE Co.**

(213) 923-2915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팔다 New & Used Buy & Sell

##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 전기 . 철공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 용접, 게이트

경남 철공소

## 모터 수리

213-256-4884

##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10% 할인  
✓브레이크 ✓투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커피 미니 자판기

CoffeeTreeUSA

따스하고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T.213-272-7502

www.Coffeetreeusa.com  
1513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 시온마켓 내 -

##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매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 선녀탕 (仙女湯) 매매

Meaning yellow matter 금줄에서 나오는 물  
The natural minerals, sulfur, Calcium and magnesium with arsenic(비소).  
최상급 수질, 최고수준 자연온천을 매매합니다.

선녀가 내려와 목욕할 정도의 최고급 수질 온천을 일명 선녀탕이라고 하는데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노상 온천 중에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Lake Isabella 근처 최상급 수질의 선녀탕,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치료와 미용에 으뜸인 자연 온천에 귀하신 분들의 투자, 동업 나서는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궁궁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818-371-0763

#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Fashion & People

# 이 시대 진정한 장인정신을 말하다



LA골드핑거 테일러  
김병호 대표

40년 맞춤정장

외길 인생 걸어온

김병호 LA골드핑거 테일러 대표

한 분야에서 40년 이상 종사하는 이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장인'으로 불린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 3,40년 이상 한 우물을 파는 이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자신의 일에 대한 진득한 열정이 없거나 환경과 조건이 그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외국의 경우 수대째 가업을 잇는 '장인가(匠人家)'가 즐비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씁쓸하기까지 하다.

소설가 밀란 쿤데라는 그의 장편 '불멸'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큰 불멸과 작은 불멸이 있다. 작은 불멸은 평소에 알던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불멸, 큰 불멸은 그를 모르던 사람에게까지 잊혀지지 않는다는 뜻에서의 불멸이다."

옷을 만드는 테일러는 한땀 한땀 공을 들여 나온 옷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LA골드핑거 테일러 김병호 대표는 맞춤정장 분야에서 40년간 외길 테일러 인생을 걸어온 이 시대 참 '장인'이다. 테일러들은 작품으로 잊혀지지 않는 '불멸'을 꿈꾸는데, 김 대표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불멸을 완성시키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영락없는 기술자다. 1979년 서울에서 양복점을 시작해 한국 맞춤양복 기술대회에서 수차례 수상경력과 심사의원으로의 활동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진 실력과 '양복박사'로 매년 10월 롯데호텔에서 개최하는 패션쇼의 심사위원, 감독관을 역임하며 내년도 유행스타일을 선정하는 등 패션에 남다른 감각과 관록을 가진 패셔니스타로도 손꼽힌다.

그의 약력을 나열하자면 이렇다. >대한민국 법무부 직업훈련원 >서울지방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이사 >한국아트패션 회장 >한국남성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연배 >대림리사운영 1979-2000 >하이소사이어티(High Society) 테일러 >엘레브(Elevee) 테일러. 한국의 내로라 하는 유명 정치인들을 비롯해 역대 대통령들의 맞춤 정장을 직접 제작해 업계에선 그야말로 '골드핑거'로 불리면서 한국 맞춤정장 산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이곳 남가주에도 이른바 '테일러'들은 많다. LA한인타운 인근에만 해도 잠정 1백여명의 수선인이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기술 경쟁력은 물론 질적 측면에서 장인정신 이상의 그 '무엇'을 표현해낼 수 있는, 밀바닥부터 준비된 진정한 의미의 '테일러'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일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수선집들 가운데서도 김병호 대표를 한번 찾아온 손님은 누구든 그의 '손맛'에 반해 단골이 되고 만다.

"흡사 예술작품을 만들어낸다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한다"고 고백하는 김 대표의 프로 정신에 이곳 남가주에서도 한인뿐 아니라 타인종까지 골드핑거 테일러를 찾는다. 비록 오픈한 지 2년도 채 안됐지만, 이 세상에 딱 한 벌 밖에 없는 '고유한' 옷을 찾아오는 패션인들에게 김 대표는 숨겨진 '보석'이다. 오픈 이래 지금까지 십여벌의 핸드메이드 정장을 오더해온 일본인 단골 아츠미 조(77)씨도 "도미한 지 50년 넘게 이런 실력자는 처음 본다. 40년을 한결같이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에게서 시대의 '장인'의 관록이 엿보인다"면서 "그의 테일러 감각은 말로 형언하기 어렵다. 그야말로 '아티스트(예술가)'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며 극찬을 쏟아낸다.

일이 많아 밤샘작업을 해도 한땀 한땀 직접 재단, 재봉하는 김병호 대표는 "실력과 정성을 모두 쏟아 부어 고객이 만족하는 옷을 만들었을 때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며, 100% 핸드메이드만을 고집하는 장인의 긍지와 "품질뿐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AS로 고객이 먼저 만족하는 서비스를 드린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LA골드핑거 테일러에서는 올 하반기 목회자들을 위한 20퍼센트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위치는 버몬트 길 나성플라자 102호에 위치해 있으며 운영시간은 월~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문의: 213) 386-5858  
▲주소: 975 S. Vermont ave. #102., LA (나성플라자 내)

##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 특진안내

- > 중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뺀척추
- > 엉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T. 213-219-273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www.phhyundai.com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 푸엔테힐스 현대 SUPER STORE

다양한 차량과 색상보유! 자체 파이낸싱과 특별할인 프로그램

## 9월의 스페셜



**\$115 +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16,580 (STK # 549364)

PH HYUNDAI D/C	\$813	MILITARY REBATE	\$500
VALUED OWNER COUPON	\$500	COLLEGE REBATE	\$400

**2013 ACCENT GLS**



**\$142 +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22,100 (STK # 795853)

PH HYUNDAI D/C	\$1,263	LEASE CASH	\$1,000
COLLEGE REBATE	\$400	MILITARY REBATE	\$500
VALUED OWNER COUPON	\$500		

**2013 SONATA GLS**



**\$632 +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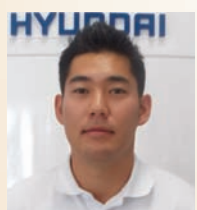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6,999

MSRP \$60,170 (STK # 069499)

PH HYUNDAI D/C	\$53,590		
COLLEGE REBATE	\$400	MILITARY REBATE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1,000		

**2013 EQUUS SIGNATURE**

갖고 싶은 현대차를 가장 좋은 이자율로 모시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더욱 만족을 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세요!



에드윈 김

626.610.6570



로버트 정

323.839.7074



스티브 장

626.513.4005



찰리 정

626.513.4981



America's Best Warranty<sup>®</sup>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중개인으로부터 차를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개 수수료없이 푸엔테힐스 현대를 통해 직접 구매하세요.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